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시민협회가 20일 개최한 영리더심포지움에 연사로 참여한 Dr. 기박, 조셉 전 감독, 투 누엔 우스터 시의원(사진 왼쪽부터)

영리더심포지움서 만난 3인이 전하는 삶의 지혜

시민협회 주최, 영리더심포지움 관심 늘었다 조셉 전, 기박, 투 누엔 삶의 깨달음 2세들과 공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시민협회가 주최한 2021 영리더심포지움이 11월 20일 뉴튼 소재 포포인츠첼라톤호텔에서 팬데믹임에도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세익스피어의 작품에 등장하는 문구 "Going against grain" 를 주제로 열린 영리더심포지움에는 지적재산권 변호사로 일하다 영화감독으로 변신한 다큐멘터리 헤로니모의 감독 조셉 전(Joseph Juhn), 매사추

세츠 최초 성소수자 선출직 당선자이자 커뮤니티 오거나이저인 투 누엔(Thu Nguyen), 하버드에서 퇴학당했으나 하버드 교수로 임용된 기박(Dr. Kee Park) 박사가 자신들 삶의 깨달음을 공유했다.

"Going against grain" 은 일반적인 행동을 벗어나서 하는 사고, 행동 등을 뜻한다. 따르기 어려운 길을 가는 것,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규범을 파괴

플리머스 400주년, 땡스기빙도 원조 논쟁

버지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등 원조 논쟁에 뛰어들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플리머스(Plymouth)는 이번주 "첫땡스기빙" 40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지난 토요일 개최된 "어메리카스 홈타운 땡스기빙 퍼레이드" 를 개최한 조직위의 윌리 디메시도는 "플리머스에서 시작된 땡스기빙이며 이는 미국의 국경일이다" 고 주장했다. 이 퍼레이드는 26일 WCVB에서 방영된다.

그러나 미국 우표에도 표시되고 각 학교에서도 매년 교육되는 이 땡스기빙의 원조 논쟁도 뜨겁다.

버지니아 땡스기빙 페스티벌을 주최하는 조직위는 오래전부터 땡스기빙이 버지니아주 영국 정착민들에 의해서 1619년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플리머스의 필그림들이 첫 땡스기빙 축제를 연 1621년에 비해 2년 빠르다.

▶▶5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KATHY SONG PREMIER REALTY GROUP

고객만족도 평가 5/5을 보여주는 고객 최우선 서비스를 약속 드립니다.

주택, 상가, 비즈니스
매입 매매 상담 환영합니다.

Call Kathy Today 413.313.4165
Kathysong2019@gmail.com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Korea licensed
Mul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bostonpremierrealty.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Restaurant for sale

현주인 16년동안 운영. 은퇴 원함.
안전하고 좋은지역.
최고의 시설. 유명 대학 부근.
연 16만 순수입. 리스 많이 남아 있음.
페이를 받으시면서 일하시다가 구입하셔도 무방함.
가격 \$150,000

PK Property 부동산
Broker: Peter Han
cell/text message: 215.668.1666
Pkbroker7@gmail.com

시민협회 영리더심포지움 참가 후 생긴 의문

왜 좋은 프로그램에 이렇게 한인들의 참여는 적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명술 기자 = 시민협회 영리더심포지움 행사를 취재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왜 행사에 참여하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여가 적을까. 한인들이 자녀교육에 관심이 없어서일까. 더 이상 배울게 없는 것일까. 그건 아닐까.

여러가지 의문을 던져보다 행사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언론의 책임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좀더 다른 형식으로도 소개해보고자 한다.

시민협회는 한인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 중의 하나다. 시민협회가 하는 정치인턴, 시민권워크샵, 정치인 펀드레이징, 코리아데이 행사 모두 중요한 사업들이다. 그중 자녀들과 부모들이 함께 듣고 교육, 이민, 정체성 등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사업이 영리더심포지움(YLS)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들은 자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이중언어의 장점이 있는 반면, 다른 피부색깔과 문화를 가진 사람이 대다수인 미국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미국사회에서의 한국인으로 정체성이 혼란이 아닌 자신의 장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바로 YLS다.

특히 어렸을 때의 한 순간의 깨달음, 한순간의 따뜻한 격려, 꼭 필요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로 인해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자신만의 독특한 철학으로 개척해 나간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존감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다.

이번 심포지움에 참여한 변호사이자 다큐 영화 <헤로니모>의 감독인 조셉 전은 자신이 LA의 한 컨퍼런스에서 KW Lee를 만나 LA 흑인 폭동의 진실을 듣고선 비로서 자신이 “코리안 아메리칸”이란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밝혔다. 18세 때 이민 와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지 못했었지만 이 같은 기회를 통해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20일 영리더심포지움에 참가했던 참가자들이 행사를 마친 후 사진촬영을 가졌다

사실 YLS는 자녀들을 중심으로 한 행사이지만 어찌보면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들어도 가져갈 것이 많은 행사다.

이날 연사 중의 한명이자 성소수자인 투 누엔 우스터 시의원은 “내게 나 이상을 바라지 않은 나의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고 말했다. 늘 아이들에게 그 이상을 욕심냈던 필자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늘 그 이상을 요구하게 되면 그만큼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점차 작아지지 않겠는가. 무엇을 해도 그 이상으로 격려해야겠다는 소망을 얻었다.

더구나 하버드 의대 교수인 박기범 교수는 한인 학생들의 경우 가장 아쉬운 것이 “Self-advocate” 이라고 말했다. 한인 학생들이 박 교수의 눈을 쳐다보며 이야기 하는 것은 아

주 드물다. 하지만 백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은 아주 공격적이란다. 거침없이 자신에 대해 말하고 교수에게 만날 시간을 정하자고 요구한다.

박 교수는 코리안 아메리칸 학생들도 자신이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Self-advocacy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녀들이 자신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 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수직적이기보다는 모든 의사결정에 자녀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더욱 이런 행사에 자녀와 함께 참여해 여러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자녀들은 이런 기회를 준 부모님께 고마워 할 것이다. 자녀와 좋은 시간을 보냈

다는 뿌듯함도 보너스로 받는다.

이날 YLS에 참여한 한인들은 70여명이었다. 팬데믹 상황에서 이정도 숫자는 상당하다. 팬데믹 이전만큼 많은 수였다. 시민협회의 회장단, 즉 2세 중심의 실무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래도 좋은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어쩔 수 없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영리더심포지움은 해마다 11월에 열리니 자신의 캘린더에 표시해 놓으면 좋다.

시민협회 측도 최소한 2개월 전부터 공지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좋은 연사를 섭외하기 위해 노력하다보니 늦어질 수 있다. 그래도 조금더 빨리 공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설렁탕
겨울 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Best Soup in the City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영리더심포지움서 만난 3인이 전하는 삶의 지혜

▶▶1면에 이어서

하고 행동하는 것 등의 의미도 있다. 시민협회의 차세대 임원진들은 이 뜻을 “내면의 목소리를 찾아서” 로 규정했다.

행사는 소피아 박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양미아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양회장은 “소피아 박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심포지움의 주제를 정했다” 고 밝히고 “우리는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반복하다 보면 깊고 독특한 것을 만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말했다.

양회장은 지느러미를 이용해 먼 바다로 헤엄쳐나가는 참치 캐릭터와 랍스터 케이지 안에서 주어진 먹이를 먹는 랍스터 캐릭터를 비교하며 중요한 것은 적절한 균형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기준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시민협회는 창설된 이래 한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한인사회와 미국사회의 교량역할을 해왔으며, 2세들의 정치참여도 장려했다고 말하고 최근 4명의 한인 정치인이 미 의회에 진출하는 등 한인들의 정

치적 역량의 증진을 목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리더심포지움이 차세대들의 잠재성을 일깨우며 미국사회에서 큰 꿈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 총영사는 원고를 들여다보지 않고 5분간의 영어연설을 전달해 이번 행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던 흔적이 역력했다.

이날 행사에는 당초 60명 좌석을 예약했으나 참가신청이 늘어 추가분을 준비할 정도였다.

“Against grain” 의 대표적인 사례는 첫번째 연사인 조셉 전 ‘헤로니모’ 영화감독이다. 그는 지적재산권 변호사란 안정적 직장을 집어던지고 다큐 영화감독으로 변신했다. 그는 강연을 통해 차세대 한인들이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글로벌 코리아어메리칸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리아어메리칸뿐만 아니라 중국의 연변족, 독일의 한인, 그리고 쿠바의 한인들 그 모두가 “한국사람도 아니고 미국사람도 아니라” 는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다고 말하고

세계의 난민들에게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디아스포라는 ‘고통’ 이라며 자신의 나라를 떠나는 고통,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는 고통을 경험하며 결국 이 고통을 통해 이중성을 융합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으로 봤다.

기 박 박사도 어려운 길을 스스로 선택한 대표적인 경우다. 편안한 의사생활을 접고 가난한 나라 캄보디아에서 외과수술을 가르치는 선택을 했다. 그곳에서 의료시스템이 문제임을 깨닫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하버드에서 의료시스템에 관한 공부를 했다. 과거 자신을 퇴학시킨 하버드의 부탁으로 교수로 임용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도움을 주는 일에도 관여하게 됐다. 그러나 같은 동족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도와주는 사람 중 한국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모두 백인들이었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글로벌 헬스를 세계의 가난한 나라에 전파하는



영리더심포지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양미아 시민협회장(좌)과 축사를 전달하고 있는 유기준 총영사

역할을 하고 있다.

기박 박사는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자신감에 대해 “정의감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고, 어려운 사람을 지지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내가 아니라면) 누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것인가” 라고 말하고 “누군가를 돕는 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단지 (도우려고) 시도하지 않았을 때만 실패한다” 고 덧붙였다.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자신감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날 질의 응답시간에는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참가자들의 관심을 반영했다. 시민협회는 총영사관의 후원으로 이번 행사를 진행했으며 참가자들 모두에게 점심을 제공했다. 행사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행사 말미에 시민협회는 경품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전달했다.

editor@bostonkorea.com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산 자가진단 코로나 테스트 키트 판매 합니다. 개당 \$50”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최근 다시 폭증하는 코로나로 알게 된 진실

전문가 감염 예측은 옳으나,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많아 백신접종 50세 미만, 코로나보다 자동차 사고가 더 위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세벽 기자 = 한달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은 뉴잉글랜드 일부와 아팔래치안 산맥 서쪽에서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캐나다를 비롯한 미국 북쪽에서는 감염이 줄어들었다.

이 같은 패턴은 미국의 차가운 날씨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 급증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CDC도 이에 동의했다. CDC는 11월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안타깝게도 이 같은 예측과는 달리 이번달 들어 30%가 늘었다. 뉴잉글랜드지역에서는 52%가 폭증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한지 2년째, 이 바이러스는 곳곳히 우리에게 머물고 있다. 또한 팅스기빙 가족모임을 앞두고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11월 중순들어 증가하기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분명한 해석은 날씨다. 날씨가 추워지고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가 퍼진다는 해석이다. 물론 날씨는 이같은 급증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를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추운 날씨가 정말 큰 문제라면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 급증 추세는 다른 양상을 보여야 한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급증 추세에 대한 정확한 해명은 없다.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과 관련해 감염 전문가들이 아는 것보다는 모른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가끔씩 이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그리고선 매일 감염 확산과 관련해 이유를 내놓고 있다. 감염이 급증하게 되는 경우 날씨, 학교, 마스크착용, 그리고 스포츠 등의 이벤트 등을 이유로 제기한다.

바이러스의 예측 불가능성은 언제든지 바이러스가 우리를 덮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달전만 해도 북쪽주들의 코로나바이러스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다. 또한 올해 겨울은 그

리 감염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지난해는 1월에 가장 감염율이 높았다. 그러나 2월 들어 75%나 줄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측을 신뢰할 수 없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좋은 점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온 이상 바이러스가 그다지 위험하지 않은 것이다.

백신 맞은 50대 미만은 안전
코로나바이러스가 위험하기는 하지만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경우 충분히 이를 감당할 수 있다.

가장 큰 경계선은 나이다. 미네소타의 코로나바이러스 자료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한 50세 미만의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은 0%이다. 워싱턴주의 사망률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하의 백신접종자의 사망률은 너무 낮아 표시할 의미가 없을 정도다.

65세 이하 백신접종자들의 병원 입원율도 매우 낮다.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 미네소타의 주당 평균 백신 접종자들 18세에서 49세 이하의 병원 입원율은 10만명당 1명으로 거의 무탈이었다

뉴욕 타임즈가 제시한 다른 자료



에 따르면 미국내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은 인구 10만명당 3명이었다. 자동차 사고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10만명당 20명이었다.

코로나바이러스 공포스럽긴 하다. 그러나 65 이하의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는 자동차 여행보다 위험하지 않다. 결국 백신 접종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80에서 90세의 노인층의 경우 백신을 접종했다 하더라도 코로나바이러스는 커다란 위협이었다. CDC자료에 따르면 이는 플루나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했다.

따라서 노년층들은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또한 장기 이식수술을 받은 사람들 등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들은 또한 백신을 통해 보호를 받아야 하고 잠재적으로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격리

되어 한다
5세 이상의 아동들에 코로나바이러스는 대부분 아주 경미한 증상만 보인다. 그럼에도 백신을 접종한 아동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을 전달할 확률은 극히 낮다.

부스터샷에 대한 논란도 마찬가지다. 젊은 중장년층은 이미 2차접종으로 거의 심한 증상을 앓지 않게 된다. 그러나 백신은 시간이 가면서 효력이 약화돼 경미한 증세를 일으키게 되며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게 된다. 이제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다.

팅스기빙 가족 모임을 앞두고 있다면 모두가 가능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또한 불안한 경우 감염검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가족이 모이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는 모두 잊어버리면 된다.

hsb@bostonkorea.com



렉싱턴 Wallis Dental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분 한분을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클리닝, 충치치료, 신경치료
크라운, 브리지, 틀니, 임플란트**

거의 모든 각종 보험 취급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치과의사 김민정
Boston University Dental School 졸업

20여년 이상 메사추세트에서 치과의사로 일하고 있으며, 현재 Boston University Dental School faculty.

TEL : 781.862.6565 (렉싱턴 센터에 위치)
1 Wallis Court Unit #4, Lexington, MA 02421

for the glory of God

**Piano Concert
by Grace Oh**

Haiti Ebenezer Mission 후원을 위한 자선 음악회

Grace Oh
Emory University
NEC
Boston University

Dec 11(Sat) 4pm
You may come or join on our live youtube channel.
At Boston Joyful Church
Zero Garden st, Cambridge MA
(Christ Church Cambridge)

Donation \$40 or more.
Pay to the order ; Haiti Ebenezer Mission
22 School In Watertown MA 02458

백신반대집회 참석한 7명의 의사 코로나 걸려

구충제 아이버멕틴 코로나 치료제로 주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아이버멕틴(Ivermectin)을 코로나 방지약으로 추천하고 백신을 반대하는 플로리다 주 집회에 참석했던 7명의 의사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 의사들은 11월 6일 플로리다 오칼라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집회에 참석했다. 이 집회는 “자연 면역, 백신의무화, 코로나백신과 어린이, 코로나치료를 위한 외래처방, 종교적, 의학적 백신의무화 면제 획득”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이 집회에서 7세의 심장학자이자 백신반대주의자인 브루스 보로스 박사는 “16개월간 아이버멕틴을 복용해 왔으며 지금보다 더 이상 건강하게 느껴본 적이 없다”고 선언했다.

이틀 후 그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컨퍼런스 후 수일만에 그 외 다른 6명의 의사도 양성판정을 받았거나 코로나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번 집회를 조직했던 존 리텔 박사는 이들이 집회에서 감염되지 않았으며 다른 곳에서 감염됐을 것

이라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아이버멕틴은 기생충, 이 등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으나 극우 정치인들과 언론들은 아이버멕틴을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로 선전하고 있다.

미 FDA와 CDC는 아이버멕틴을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로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임상결과 이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하거나 증상을 완화하는데 전혀 효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을 제조하는 제약회사 머크는 이 약이 코로나에 유의미한 치료 효과를 낸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리텔은 여전히 이 약을 찬성하는 사람중의 하나로 남아있다. 그는 이약을 처방받지 못하는 다른 주의 환자들에게 이 약을 처방해 오고 있다. 제약회사에서도 거부한 약효를 고집하는 이유가 뭘지 자못 궁금하다.

이번 집회의 다른 연사인 위스콘신 주의 피에르 코리 박사는 2020년 상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를 중단시키고 전염을 막는 기적의 약이라고 아이버멕틴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AP는 사실 확인에서 이것이 “거짓”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hsb@bostonkorea.com



미 FDA와 CDC는 아이버멕틴을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로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플리머스 400주년, 땡스기빙도 원조 논쟁

▶▶ 1면에 이어서

버지니아 조직위는 이도 모자라 1961년에는 매사추세츠에 대표단까지 파견했다. 보스톤글로브에 따르면 이들은 15파운드의 터키를 당시 매사추세츠 주지사에게 전달하고 플리머스의 행정관원 위원장에게도 선물했다. 그리고 이들을 버지니아주 땡스기빙행사에 초대했었다.

매사추세츠 조직위는 버지니아 주의 주장을 일축했다. 보스톤글로브는 추후 “남부인들의 가짜 필그림들 행사”가 뉴잉글랜드 스타일의 비는, 비 그리고 우박으로 망쳤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부 텍사스 주 역사학자들은 첫 땡스기빙이 1598년 텍사스주 엘파

소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플로리다 잭슨빌 히스토리컬 소사이어티는 첫 땡스기빙은 필그림이 유럽을 떠나기 수십년 전인 1565년 스페인 정착민들과 원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한 축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땡스기빙 식사가 터키가 아닌 약어였다고 주장한다.

플리머스의 땡스기빙 퍼레이드 조직위 드머시도 위원장은 “매년 우리는 다른 곳에서 원조 이야기를 듣고는 한다. 그들은 자기의 것이라 말하고 싶겠지만 이는 우리 매사추세츠주의 전통이며 우리가 그 전통을 보유하고 있다”고 딱 잘랐다.

hsb@bostonkorea.com



THE WORLD'S NO.1 GINSENG BRAND
CheongKwanJang

Source: Euromonitor International Limited; Vitamins and Dietary Supplement category; % retail value share, 2019-2019 data; CH2020 edition

가족에게 건강한 습관을 선물하세요



Happy Thanksgiving

가족건강이 가장 큰 감사!

Thanks Giving Family Giving

행사기간 : 11/8일 ~ 28일까지

1 면역력



홍삼톤, 자녀용 제품구입시
1개/2개/3개
5%/10%/20%

2 면역력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추가증정

3 면역력



천녹정 구입시
홍삼원골드 한박스 추가증정

면역력의 힘! 정관장 홍삼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전화로 주문후 집에서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그랜드마스터홍스월드클래스태권도의 주관으로 9월 25일 이스트 그린위치 고교에서 제7회 총영사배 태권도 대회를 개최해 선발된 지역대표들

대사배 태권도 세계 결선, 뉴잉글랜드 지역 출신 선수들이 석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 외교부가 주최 대사배 태권도 대회 세계결선(2021 World Taekwondo Championship of the Ambassador's Cup)에서 로드아일랜드 및 인근 지역 선수들이 9명이 입상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1월 16일 열린 2021년 대사배 태권도대회 세계결선에서 뉴잉글랜드 지역 대표들은 금메달 6명, 은메달 2명, 동메달 1명 등 역대 최대의 수상 실적을 기록했다.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세계 결선에서는 세계 각국 33개 지역의 태권도 선수들이 참여해 태권도 실력을 겨뤘다. 외교부는 우리 태권도의 지속적 확산을 도모하고 글로벌 태권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매년 각국 대사관/총영사관이 지역 예선 대회를 개최한 후 뛰어난 기량을 선보인 선수들을 초청하여 세계 결선 대

회를 주최하고 있다.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올해 팬데믹으로 지역 예선 개최가 불투명하였으나 그랜드마스터홍스월드클래스태권도의 지원으로 9월 25일 이스트 그린위치 고교에서 제7회 총영사배 태권도 대회를 개최해 지역대표를 선발했다.

그랜드마스터홍스월드클래스태권도 흥진섭 관장은 “당초 코로나19로 인해 예선전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걱정했으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기해야 하는 약조건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예선전에 참가하여 현지인들의 태권도에 대한 크나큰 관심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말하고 “우리 뉴잉글랜드 지역 선수들이 전세계 33개 지역 출전자중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해 그간 땀 흘리며 미국사회에 태권도를 보급해온 사범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라고 말

했다. 이번 뉴잉글랜드 지역 예선을 거친 2021 대사배 태권도 대회 세계 결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KAYDEN HA: 남자 11세 이하 개인전 금메달
 - BRYSON LOVORN: 남자 15~17세 개인전 금메달
 - KWANGJIN HA: 남자 36~50세 개인전 금메달
 - NATALIE EMMERTH: 여자 11세 이하 개인전 금메달 (TEAM) JAKE HA 2명: 혼성 단체 금메달
 - SAMARTH BASANTH: 남자 12~14세 개인전 동메달
 - LINSEY KIM: 여자 12~14세 개인전 은메달
 - MARILEE GANTER: 여자 15~17세 개인전 은메달
- bostonkorean@hotmail.com



월요일날 올 시즌 첫눈 가능성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땡스기빙 다음날인 27일에는 비가 몇 차례 내린 후 추워진다. 이어 토요일, 일요일에는 찬공기가 보스톤 지역에 진입하며 월요일인 29일 시즌 첫눈을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

첫눈은 우스터, 버크셔 그리고 뉴햄프셔 고산지대에서는 충분히 대지를 하얗게 덮을 정도의 눈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해안가에 발달한 기압골이 내륙쪽에 형성된 차가운 공기와 만나 눈이 내릴 것이므로 해안가에서 떨어진 내륙지역에 눈이 쌓인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일요일

밤 추울 때 눈이 도착해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경우 월요일 출근길에 정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월요일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어 앞으로 더 자세한 정보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겨울철에는 태양이 비추는 각도가 낮아져서 특히 운전시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많다. 남서쪽 방향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같은 현상이 심한데 9번 도로 남쪽으로 운전하는 경우 렉싱턴 인근에서 남서쪽의 햇살이 눈을 가려 차량의 정체를 유발하곤 한다. 이 지역을 통과시 주의해야 한다.

hsb@bostonkorea.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팬데믹 동안 43만 매스 주민들 유틸리티 요금 못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난 팬데믹 15개월 동안 매사추세츠 주내 43만 가정이 전기 또는 가스 요금을 연체했으며 금액은 6억3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스톤에 본사를 둔 전국소비자법률센터 (National Consumer Law Center)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요금이 연체된 가정은 팬데믹 이전보다 9만 가정이 증가했다. 지난 6월말까지 430,500명의 유틸리티 계좌 소유주들이 3개월 이상 요금을 연체했으며 이는 팬데믹 전 3개월 이상 연체자들에 비해 9%가 증가한 수치다. 6월 말까지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연체된 가정의 평균 전기 요금은 \$1,650에 달해 팬데믹 전 평균 연체요금 \$1,215에 비해 36% 증가했다. 미 에너지 정보원은 \$1,650은 매사추세츠 주민들의 평균 1년 전기요금과 맞먹는다고 밝혔다. 천연가스 사용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한 주민의 평균 연체비용은 \$1,140로 팬데믹 이전의 \$850에 비해 23% 상승했다. 매사추세츠의 1년 평

균 가스비는 \$1,000이다. 이번 보고서를 발간한 애나 코왕 코씨와 찰리 해락씨에 따르면 “팬데믹은 일부 주민들이 기초 필수품인 유틸리티 서비스요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 타격을 입혔다”고 분석했다. 해락씨는 유틸리티 요금이 연체된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받기까지는 많은 서류와 복잡한 처리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해락씨는 케네디컷은 최근 주정부와 유틸리티회사들이 공동으로 기존의 데이터를 사용해 해당 연체자들이 연방 및 주정부 혜택이 가능한지 파악하는 모델을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긴 신청절차를 제거하게 되는 것이다. 매사추세츠와 다른 주들도 이 같은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유틸리티를 90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전기나 가스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 지난 7월 1일 유틸리티 공급 중단 모라토리움이 해제된 이래 7천명의 주민의 전기 및 가스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총 430,500명의 연

체자 수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에버소스의 대변인 윌리엄 핑클은 “전기 가스 공급중단은 가장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연체자 한명 한명에게 접촉해 납부 플랜을 마련하고 다른 도움을 주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버소스와 내셔널 그리드는 저소득 가정의 경우 연체금액에 대해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또한 소득에 관계없이 연체된 모든 가정에는 12개월 할부납부 계획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난방연료 보조프로그램은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78,00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팬데믹 당시 만들어진 비상렌탈보조프로그램 (ERAP)도 연체된 유틸리티 비용납부를 보조한다. 이 같은 보조는 각 타운에 있는 community action agencies를 접촉해서 신청해야 한다. 비록 유틸리티 중단 모라토리움이 끝났지만 저소득층 가족으로 12달미만의 영아와 시니어가 있는 경우 유틸리티 중단을 막을 수 있다.



매스 주 경찰 수십명의 오토바이 무리 수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수십대에 달하는 오토바이를 탄 무리들이 지난 주 보스톤에서 한 시니어가 운전하는 차량을 공격해 놀라움을 안겼다. 보스톤도 이제 오토바이족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다. 주 경찰의 성명에 따르면 이들의 공격으로 82세의 브루클라인 거주 시니어는 18일 목요일 심각한 부상을 당했으며 여전히 병원에 입원 중이다. 사건은 18일 밤 7시 30분 이 시니어 운전자가 보우커 오버패스 (Bowker Overpass) 인근의 파크 드라이브에서 보일스턴 스트리트로 진입하면서 발생했다. 30-40여대에 달하는 야외 경주용 오토바이를 탄 무리들은 이 노인의 차를 도로 갓길로 몰아부친 후 차량 유틸리티를 부셨다. 이 남성은 이들을 피하고자 보우커 오버패스를 타고 스토로우

드라이브에 진입했다. 그러나 일부 오토바이들은 그를 추적해 계속 차를 때리고 발로 찼다. 피해자 한 시니어가 운전하는 차량을 공격해 놀라움을 안겼다. 보스톤도 이제 오토바이족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는 유리창 문을 내리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편지를 날렸으며 다른 오토바이족들은 차를 계속 발로 걷어찼다. 한 오토바이 남성은 쇠파이프를 뒷 유리창에 집어 던져 박살을 내고 돌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이 피해자는 캠브리지 스트리트에서 좌회전해 올스톤으로 향하다 조스쿼마크스 주유소로 들어갔으며 차에서 내린 후 땅에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목격했거나 비디오로 촬영한 운전자들의 신고를 바라고 있다. 617-727-8817.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시에서 민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경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Michelle Han CPA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보스톤 부동산시장, 거래는 줄고 가격도 하락

워렌그룹, 높은 가격 적은 매물로 매매 21%하락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부동산 거래수가 10월 들어 급락했다. 매사추세츠 주택 거래 동향을 발표하는 워렌그룹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단독주택 거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2%가 하락했으며 콘도 거래는 15%가 하락했다.

워렌그룹에 10월 집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택판매 중간 가격은 \$500,000로 지난해 10월 \$455,000에 비해 9.9% 상승했다. 콘도는 중간 가격이 \$425,000로 3.7% 올랐다. 그러나 올해 월별로 비교했을 때 지난 8월 단독주택 중간 가격이 \$535,000, 콘도 중간 가격이 \$470,000이던 것에 비하면 상당부분 하락했다.

매사추세츠 중 동부매사추세츠 64개 시와 타운의 부동산 가격을 집계하는 그레이터보스톤부동산중개인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10월 중간가격은 \$700,000, 콘도가격은 \$609,500로 8.9월 인상세에 비해 상당부분 하락했다.

따라서 '비드워' 라고 불리던 뜨거운 셀러스 마켓은 이제 거의 종료되었으며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노정에 놓여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디노 콘팰론 협회 회장은 "1년 반 동안의 부동산 광풍이 사그라들면서 정상 시장의 느낌을 주고 있다. 현재 바이어들이 좀 더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는 몇차례 오퍼에

서 미끌어진 경우 지난 몇주간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고 밝혔다.

부동산 매매의 하락과 가격상승의 꺾임세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하면 여전히 매물이 많지 않아 실제적으로 좋은 집을 구매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콘팰론 회장은 "셀러들은 여전히 우위에 있지만 올해 초에 비하면 훨씬 약해졌다" 고 평가했다.

보스톤의 부동산 시장은 겨울철 약화되었다 봄철이 되면서 다시 수요가 상승해 활황세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그러나 모기지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가격상승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hsb@bostonkorea.com



팬스기빙 앞둔 주말 매사추세츠 신규확진자 6,801명

22일 지난 주말 2일동안 신규 감염자 발표 팬스기빙 앞두고 7일 평균 양성확진율 3%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매사추세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수가 지난 주말 2일동안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팬스기빙을 맞은 이번주 더욱 큰 확산이 우려된다.

보건부가 지난 주말 2일동안의 기록을 모아서 발표한 22일 신규 감염자는 6,801명으로 하루 평균 3천명 이상의 확진자를 기록했다. 병원환자도 702명으로 늘었으며 중환자실 환자는 143명,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는 81명이었다.

특히 지난 월요일인 15일 주말 2일 동안 감염자수는 5,248명이었으나 이번주에는 6,800여명으로 늘어나면서 최근 급증추세를 드러내고 있다. 7일 평균 양성확진

율은 지난 11월 17일 3.02%를 기록한 이래 22일에는 3.07%로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 신규확진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병원 입원율은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 또한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위안을 주고 있다.

지난 2주간의 감염자들은 5세에서 9세가 가장 많은 비율로 발생했으며 10세에서 14세가 그 다음을 차지해 학교에서의 감염이 가장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 10만명당 5세에서 9세의 감염율은 699.9명이었고 10에서 14세는 621.2명이었다. 이에 비하면 30세에서 39세가 411.6명으로 많았으며 20세에서 29세 사이도 377.5명에 불과했다.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제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래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형제 떡집

모든 종류 떡 주문 가능!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요가송의 5분요가

유튜브 검색창에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일자목, 거북목이라면 꼭 해야하는 스트레칭!

거북목이나 일자목은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들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매우 흔한 증상인데요, 요즘은 장기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도 같은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연스런 목의 커브가 형성되지 못하고 목뼈가 '1'자로 되어 '일자목'이 되었거나, 무의식적으로 앉거나 서 있으면 머리가 앞으로 구부정하게 나와 굽어지는 '거북목'의 증상을 가만히 방치해두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지 못할 정도의 목, 어깨 통증이나 목디스크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물론 위의 두 증상이 반드시 아니더라도 평소 목뒷면에 뻣뻣함과 어깨가 빠근하신 분들은 자주 영상을 보고 따라해보시길 추천합니다. 검색창에서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을 검색하신 후, 최근 영상에서 10분 목통증 스트레칭 편을 찾아 따라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설정도 꼭 함께 해주세요! (매주 짧은 영상과 1시간 라이브Zoom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풀영상을 업로드 중이에요.)

첫번째 자세는 SIDE NECK STRETCH입니다.

STEP 1. 앉은 자세에서 오른손으로 머리 왼쪽 측면을 지긋이 눌러줍니다.

STEP 2. 왼손으로는 어깨와 목이 만나는 지점을 지긋이 눌러 줍니다.



주의! 허리가 구부정하지 않도록 척추를 곧게 편상태를 유지합니다.

STEP 4. 3-5회 호흡 후 천천히 손을 풀어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칭해주세요.

두번째 자세는 SPINAL TWIST입니다.

STEP 1. 두 손을 머리위로 가져갔다 내쉬는 숨에 몸을 왼쪽으로 틀어 줍니다.

STEP 2. 오른손으로 왼 허벅지나 무릎 바깥을 밀어내며 복부를 수축합니다.

주의! 목근육이 긴장하지 않도록 어깨선을 바닥으로 내리며 호흡합니다.

STEP 3. 시선은 왼쪽 어깨 너머로 고정하거나, 혹은 두 눈을 감고 얼굴의 긴장감도 풀어줍니다.

STEP 4. 3-5회 호흡 후 다음 동작으로 바로 진행해줍니다.



세번째 자세는 SIDE STRETCH입니다. 코어의 힘을 기르고 허리와 옆구리라인을 날씬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STEP 1. 오른손은 그대로 두고 왼손을 천정



쪽으로 뻗어줍니다.

STEP 2. 내쉬는 숨에 천천히 오른 어깨를 허벅지나 무릎 쪽으로 내려줍니다.

주의! 가슴이 바닥이 아닌 정면 혹은 살짝서 천정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STEP 4. 엉덩이를 지긋이 바닥으로 뿌리내리며 늘리고 있는 몸의 측면에 집중하며 호흡해주세요.

유튜브도 좋지만 라이브 온라인 수업으로 선생님과 소통하며 직접 자세 교정도 받고 싶다면?

하연샘과 함께 하는 매주 라이브 ZOOM 요가 & 필라테스

라이브 ZOOM 무료 수업 체험

현재 매주 온라인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건강과 아름다움, 자신감과 긍정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이니 1회 무료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카톡아이디 yogafullnesslife 로 본인 이메일 주소와 함께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s://bit.ly/3w9ks4u>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COMPASS

Our mission is to help everyone find their place in the world.



Why Compass 왜 컴파스인가?

- 부동산 서비스와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프롭테크(PropTech) 기업
부동산(property) + 기술(technology) = 컴파스 (Compass)
- 부동산 구매자와 에이전트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매물 검색과 개인화된 매물추천, 부동산 거래 관련 상호 커뮤니케이션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통합 부동산 플랫폼 제공
-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5000억원 투자한 회사
- 저스틴 월슨 비전펀드 선임 투자전문가 “컴파스는 주택 구매자와 중개업자를 연결해주는 차별화된 기술 플랫폼을 갖추고 있어 이 분야에서 입지가 탄탄한 기업”
- 2019년 판매량 기준 보스턴 및 케임브리지 1위 (Source: MLS)
- 750+ Agents in Greater Boston
- Operates in 20 U.S. markets including New York, Philadelphia, Boston, LA, Chicago, Washington D.C., Dallas, etc.

Agent Introduction 에이전트 소개

안녕하세요, 제이슨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로 미국 최고의 부동산 회사인 컴파스와 함께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부동산 토털 서비스를 가지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컴파스에서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과 최고의 정보기술과 함께, 헌신 (dedication), 믿음 (Trust), 결단력 (Determination) 을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거래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ompass 와 함께 차원이 다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슨 드림



Jason Jeon 제이슨 전
Realtor®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com



Compass Services

Compass Concierge 컴파스 컨시어지

컴파스 컨시어지는 셀러에게 무이자로 주택 개선 비용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페인트, 바닥, 스테이징 등 집 리모델링에 관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의 가치를 최대한 올려 더 빠르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Compass Coming Soon 컴파스커밍순

compass.com 에 부동산을 시장에 출시 될 예정임을 사전에 광고하여, 사이트를 검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과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Compass Bridge Loan Services 컴파스 브릿지론

컴파스 브릿지론은 최대 6개월의 브릿지대출의 대출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브릿지 대출 기관인 Freedom Mortgage, Better.com 의 경쟁력있는 이자율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Compass i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All material presented herei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nformation is compiled from sources deemed reliable but is subject to errors, omissions, changes in price, condition, sale, or withdrawal without notice. No statement is made as to the accuracy of any description. All measurements and square footages are approximate. This is not intended to solicit property already listed.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as legal, accounting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utside the realm of real estate brokerage.

숙면 온도를 만드는 <나비엔메이트> 이달 말까지 BF 20% 세일

경동나비엔, 더욱 스마트하고 섬세한 난방으로 쾌적한 수면 도와 자동 물빼기, 와이파이, 쾌속난방 기능 추가, 40% 향상된 빠른 난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북미 가스온수기 시장 1위 경동나비엔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이달 말까지 온수매트를 최고 20% 할인한다. 겨울철을 맞아 온수매트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한인들에게는 좋은 구매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6 북미에 첫 선을 보인 나비엔

메이트(Navien Mate)는 경동나비엔이 세계 최고 수준의 온도제어 기술력을 적용해 만든 프리미엄 온수매트다. 매트 전체에 고르고 균일한 온도를 구현하는 기술, 유해물질 걱정까지 줄인 섬세한 감성물질로 출시 4년만에 온수매트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실제로 나비엔 메이트는 한국표

준협회 주관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에 온수매트 부문이 신설된 2016년 이후 6년 연속 1위로 선정되고 있다. 또한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온수매트 부문에서 5년 연속 1위를 수상하고,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KS-WEI)' 온수매트 부문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품질을

꾸준히 공인받고 있다.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인 온도 중에서도 수면 환경에 직결된 '이불속 온도'는 숙면의 질과 가장 직관되는 요소로 평가된다.

실제로 단국대학교에서 진행한 '수면 효율 개선 연구'에 따르면 보일러 단독으로 높은 온도(23℃)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실내 온도를 21℃로 낮추고 온수매트를 적정 온도(35℃)로 유지할 때 주관적 평가에 따른 수면의 질이 7%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숙면을 위해서는 이불속 온도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경동나비엔의 '나비엔 메이트'는 수면에 중요한 '이불속 온도'에 집중해, 각자 다른 체질에 맞는 최적의 숙면 온도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우며 고객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온도제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정확한 온도 제어 기술과 다양한 편의기능으로 고객에게 최적화된 수면 환경을 제공하도록 돕는다.

또한 스마트 온도 제어 기술로

'빠른난방' 기능은 기존 모델 대비 최대 40% 빠르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할 수 있으며, 미리 데워 놓을 필요 없이 바로 포근한 온도를 느낄 수 있다. 여기에 1mm의 초슬림 매트는 온수의 따뜻함을 몸에 그대로 전달하는 동시에 매트리스 느낌까지 그대로 살렸다.

또한 수면 시간의 체온변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최적의 온도 변화를 구현하는 수면모드와 미리 지정해놓은 요일과 시간에 따라 온수매트가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주간예약', 30분 단위로 시간별 온도를 설정해 각 개인만의 수면 패턴을 만들 수 있는 '맞춤예약'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개인별로 최적화된 수면 온도 제어도 가능하다.

경동나비엔의 온수매트는 미주 공식쇼핑몰인 NavienMate.Com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H Mart 매장을 포함한 한인 매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행사는 11월 19일-30일까지 이어진다.

고객센터 : 877-689-1541

NavienMate.Com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계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연준이 금리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정례회의 이사회에서 논의했다. 사진은 다시 연준의장에 임명된 제롬 파월 의장

미 연준 "물가 계속 급등시 테이퍼링 가속 · 조기 금리인상 준비"

11월 FOMC 의사록 공개... 물가지표 31년만의 최고 · 실업지표 52년만의 최저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구정모 기자 —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당초 예상보다 일찍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통화 긴축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준이 24일(현지시간) 공개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 참석자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보다 계속 높을 경우 현재 예상보다 빠르게 자산매입 속도를 조정하고 기준금리를 올릴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이런 가능성을 시사했다.

참석자들은 "테이퍼링에 관한

적절한 정책 조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 유연성 유지가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록은 밝혔다.

또 일부 참석자들은 "월 150억 달러 이상의 자산매입 축소가 타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는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해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조정하기에 더 나은 입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달 2~3일 열린 FOMC 회의의 마친 뒤 연준은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시작을 공표하면서 우선 11월과 12월 150억 달러(약 17조8천 억원)씩 점진적으로 자산매입 규모를 줄이고, 상황에 따라 축소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의사록 내용에 비춰볼 때 연준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경우 테이퍼링 속도를 높일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사록은 물가 급등세가 이어진다면 금리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논의가 FOMC 내부에서 있었음을 보여줬다. 이는 "테이퍼링 시작 결정이 금리 인상의 직접 신호는 아니다"는 당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 발언과 온도 차가 있었다.

FOMC 위원들은 향후 발표될 경제지표에 대해 "인내심 있는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장기적 물가안정과 고용 목표에 해가 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1월 FOMC 이후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의 2배가 넘는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다음 달 14~15일 FOMC 정례회의에서 테이퍼링 속도와 내년 금리 인상 시작 시점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 상무부가 발표한 10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작년 동월보다 5.0% 올라 1990년 11월 이후 31년 만의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전월 상승률(4.4%)을 크게 웃돌아 물가 상승이 심해지는 추세를 나타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도 작년 동월보다 4.1% 올라 역시 9월 상승률(3.6%)보다 높아졌다. 이 지수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표로서 역시 거의 3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연준 통화정책 목표의 다른 한 축

인 고용도 개선되는 모습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부담을 덜어줬다.

미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지난주(11월 14~20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19만9천 건으로 전주보다 7만1천 건 급감했다.

이는 1969년 11월 둘째 주 이후 52년 만의 최저치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사적인 경제적 진전"이라고 대환영하는 성명을 내기까지 했다.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지속 여부에 대한 전망이 연준의 행보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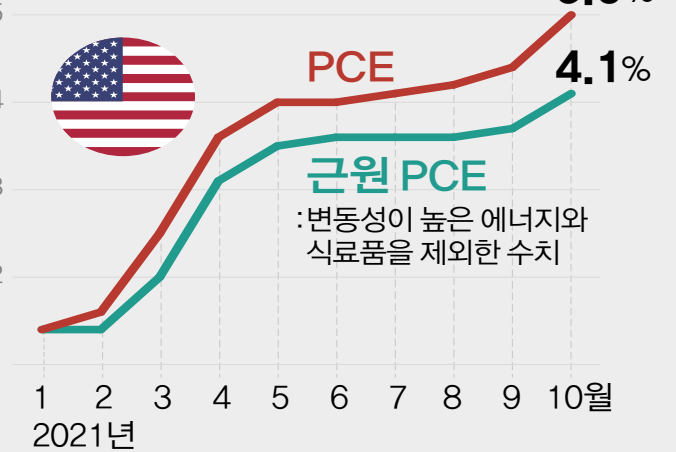
11월 의사록에서 일단 연준은 내년 중 물가상승세가 진정될 수 있다고 봤다.

의사록에는 "참석자들이 상당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과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체로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악화하면서 2022년 중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고 적혔다.

firstcircle@yna.co.kr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증가 추이

전년 동월 대비 (%)



자료/ 미국 경제분석국(BEA)

연합뉴스

신신마트 당일배송

싱싱한 스시, 사시미 배달
즉석 김밥, 홈메이드 만두 등
당일 배송 가능

배달 서비스

EXPRESS DELIVERY

각종 고기와 반찬, 쌀, 라면, 야채, 과자 뿐만 아니라 신선한 생선회(Mr. Sushi) 등을 12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안전하게 당일 배송해 드립니다.
\$100불 이상 / 배송비 10불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Free Delivery 해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에 정직합니다
정성들여 만든 신신 스페셜

- 얼큰한 해물 짬뽕국물 (\$7.99)
- 순두부 (\$7.99)
- 육개장 (\$9.99)
- 싱싱한 홈메이드 신신만두 (\$25.00) (고기만두, 김치만두)

ALL 유기농 늘푸른 농장

- 한국포도 \$19.99/pack, \$36.00/box
- 메주콩, 검정콩 \$29.99/5LB
- 배즙, 포도즙, 대추즙 \$29.99/25packs
- 마른대추 \$29.99/1bag
- 고춧가루 \$69.99/3.8LB

신신마트) 978.686.0813 (매장)
781.308.2073 (줄리 안), 781.308.2072 (다니엘 안)

케이터링 문의
한식, 일식, 중식 케이터링 (보스톤 4성급 호텔에 납품하는 허가된 등록업체입니다)
문의 781.308.2073 (줄리 안)



당번 독일의 거리 식당들

유럽, 엄혹한 겨울... '코로나 비상'에 속속 전면봉쇄

슬로바키아 2주 봉쇄... 이탈리아는 백신 미접종자 실내 출입제한, 독일 백신접종 의무화 추진

(유럽 종합-연합뉴스) = 유럽에서 연말을 앞두고 코로나19가 크게 번지자 각국이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재봉쇄와 규제 강화 등의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24일 (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의 주간역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5~21일 보고된 유럽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약 243만 명으로, 세계 신규 확진자의 67%를 차지했다.

한 주 전과 비교하면 11% 늘어난 수치다.

확산세는 가속화하고 있다. 2주 전(8~14일) 보고된 유럽의 신규 확진

자(약 214만 명)는 전주 대비 8%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환자 발생률 역시 유럽이 260.2명으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오스트리아에 이어 이웃국가 슬로바키아도 봉쇄를 결정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25일부터 2주간 전국적으로 봉쇄조치를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리하르트 술리크 슬로바키아 경제장관은 "야간 외출 금지, 문화와 스포츠 분야 대규모 행사 취소, 생필품 판매점을 제외한 일반 상점의 영업 중지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

다.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체 인구가 약 540만 명인 슬로바키아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이날 기준 1만315명, 신규 사망자는 7명이다.

슬로바키아는 네덜란드, 체코, 헝가리와 함께 신규 확진자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오스트리아는 이미 22일부터 전국적인 봉쇄에 돌입했다.

이탈리아는 내달 6일부터 백신 미접종자의 실내 공공장소 출입을 제한하는 새 방역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백신을 맞지 않은 시민은 실내 음식점·주점은 물론 박물관·미술관·극장·영화관·헬스장 등의 문화·체육시설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도 방역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프랑스는 25일 새로운 코로나19 방역조치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부 대변인 가브리엘 아탈은 전면 봉쇄는 피하고 싶고 거리두기 규정 강화와 부스터샷 속도 제고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또 백신 접종 완료 등을 입증하는 보건 증명서 적용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프랑스에서는 카페, 식당 등에 입장할 때 보건 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는 프랑스가 다른 이웃 국가들보다 감염률이 낮은 것은 보건 증명서 덕택이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방역조치에는 부스터샷 대상을 4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탈 대변인은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네덜란드도 26일까지 새로운 방역규정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일에서는 최근 부분 봉쇄 등 제한 조치 강화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백신 접종 의무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내달 독일 신임 총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라프 숄츠 사회민주당(SPD) 총리 후보는 이날 "취약 계층을 보살피는 시설에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일 보건부도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원이나 클리닉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슈피겔은 전했다.

AFP 통신은 독일이 곧 군인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한 정부 대변인을 인용해 전했다.

덴마크 정부는 대중교통, 상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는 방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스웨덴은 부스터샷 대상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눔 거브리여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백신이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종식했고 접종자들은 다른 예방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안전 의식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은 생명을 살리지만 전염을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면서 접종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분비는 곳 피하기, 환기 같은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런던 최윤정, 브뤼셀 김정은, 제네바 임은진, 로마 정성훈 특파원) merciel@yna.co.kr

스파이크 돌연변이만 32개, 보츠와나서 새 변이종 발견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한 번에 수십 가지 돌연변이가 반영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종이 발견돼 과학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문제의 코로나19 변이종은 'B.1.1.529'로 불린다. 이 변이종은 '스파이크 단백질'에 유전자 변이 32개를 보유하고 있다.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숙주 세포로 침투하기 때문에 스파이크 단백질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전파력이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보스톤코리아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83.9% 가동, 112개 남아...병상대기 역대최다

병상대기 162명 증가한 940명...4일 이상 대기자도 205명
연대 세브란스 1개, 서울성모·삼성서울 2개 남아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박규리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수도권 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연일 80%대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중환자 병상에 대한 추가 확보 명령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호전된 중환자를 옮길 수 있는 준중환자 병상을 늘려 효율성을 높여겠다는 입장이다.

◇ 신규 위중증 환자 80%는 수도권 확진자...병상 대기자 급증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9%(695개 중 583개 사용)로 전날(83.7%)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85.5%(345개 중 295개 사용), 경기 82.7%(271개 중 224개 사용), 인천 81.0%(79개 중 64개 사용)였다.

수도권에 남은 중환자 병상은 서울 50개, 경기 47개, 인천 15개 등 총 112개뿐이다.

수도권의 병상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바로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는 대기자 수도 급증했다.

이날 수도권의 병상 대기자 수는 940명으로 전날(778명)보다 162명 늘었다. 대기자수는 그동안 가장 많았던 22일의 907명보다도 33명 많다.

대기 일수가 1일인 경우가 433명, 2일과 3일인 경우가 각각 162명과 140명이다. 4일 이상 대기 중인 환자도 205명이나 됐다.

대기자 중 70세 이상 고령자는 436

명, 고혈압·당뇨 등 기타 질환자는 504명이다.

신규 위중증 환자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 지역의 병상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집계된 신규 위중증 환자 612명 가운데 489명(79.9%)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주요 병원별로 남은 중환자 병상은 대부분 한 자릿수였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 37개 중환자 병상 가운데 1개의 병상만이 남아 있다. 서울성모병원(전체 20개)과 삼성서울병원(31개)은 전체 중환자 병상 가운데 2개 병상만 비어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41개 병상 가운데 37개를 이용하고 있으며, 서울대 병원은 38개 중 32개 병상이 사용 중이다.

◇ 정부, 준중등 병상 확보에 집중... "중환자실은 이미 한계치"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현재 각 병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중환자 체계의 최대까지 (병상을) 확보한 상황"이라며 "중환자실은 앞서 내린 행정명령 이상으로 확보하기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추가 확보가 더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병상, 장비 등 물리적인 확충은 어렵지 않지만 전문 인력과 운영체계를 확보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른 중환자 진료에도 차



수도권 중환자 병상 비상...가동률 83.9%, 남은병상 112개뿐

질이 없도록 전국의 1만여개의 중환자 병상 가운데 10%가량만을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확보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1천135개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1.5%(1천135개 중 812개 사용, 잔여 323개)로 전날

(71.0%)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정부는 준중환자 병상을 늘려 기존의 중환자 병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尹 최후통첩설' 보도에 "주접 떨어났는데...잘됐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윤석열 대선 후보측이 김 전 위원장에게 "조건없는 합류 선언이 없으면 끝이라고 최후통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주접을 떨어났는데..."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뉴스 보고 '잘됐다'고 그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자꾸 말을 만들면 서로 괜히 기분만 나빠진다"며 "가급적이면 선대위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처음부터 만들자는 얘기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밝혔

다. 윤 후보와의 전날 만찬 자리에 대해선 "내 입장을 얘기했고, 내가 더 이상 물러나지 않으니 알아서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며 "내가 더이상 다른 얘기 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밖에서 (윤 후보를) 돕겠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뇌관으로 지목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에 대해 특별하게 내가 얘기할 것도 없다"며 "후보한테 이미 다 얘기했기 때문에 더이상 내가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와의 이날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바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나"라며 "시간이 해결할 테니 시간가는 걸 지켜보라"고 했다.

윤 후보의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선대위를 합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내 마음"이라고만 답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의결된 선대위 구성안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한 바 없다"며 "남이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 코멘트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한편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김 전 위원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잡음이 길어지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걱정하지 말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NOV. 26th - DEC. 2nd, 2021

H 마트와 함께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몸의 거리는 넓히고, 마음의 거리는 좁혀야 할 시간. H 마트 고객분들과 직원분들의 안전을 위해 6피트 안전 거리를 확보해주세요!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ID : @hmart_ma

Join the H Mart Social Distancing Campaign, to help slow down the spread of COVID-19 for you and our H Mart family. Keeping 6 feet apart will bring us together again.

Stem Tomato 스텝 토마토 LB \$1.29	ROSINI Peanut 로시니 땅콩 56 OZ/PKG \$5.99	Clementine 클레멘타인 3 LB/BAG \$4.99	Kabocha 단호박 LB \$0.99	Idaho Potato 아이다호 감자 LB \$0.79
ZESPRI SunGold Kiwi 제스프리 선골드 키위 BOX \$24.99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2.49	Fuji Apple 후지 사과 LB \$1.49	Korean Pear 한국산 배 BOX \$34.99	SOONYEOWON Tofu 수녀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1.29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10.99	Fresh Boneless Beef Ribeye Steak 생 뼈없는 소 등심 스테이크 LB \$12.99
Fresh Bone-in Beef Shank 생 뼈있는 소 아롱사태 LB \$5.99	Fresh Boneless Pork Loin for Cutlet 생 뼈없는 돈까스용 돼지고기 LB \$5.99
Fresh Boneless Chicken Thigh 생 뼈없는 닭 사태살 LB \$2.99	Marinated Beef Sliced Ribeye Bulgogi 양념 소 불고기 LB \$8.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ozen Head-on Patagonian Pink Shrimp 머리 있는 자연산 홍새우 10-20'S/LB \$6.99	HWAWOODANG The Original Spicy Stir-fry Small Octopus 화우당 매운맛 뉴지볶음 12.69 OZ/PKG \$6.99
HWAWOODANG The Original Spicy Stir-fry Cuttlefish 화우당 매운맛 갑오징어 볶음 12.69 OZ/PKG \$6.99	HWAWOODANG The Original Spicy Stir-fry Squid 화우당 매운맛 오징어볶음 12.69 OZ/PKG \$6.99
Frozen Wild Tiger Prawn 자연산 타이거 새우 U/10 SIZE LB \$9.99	Frozen Scallop 스칼럽 10-20 SIZE LB \$12.99

SMART CARD MEMBER ONLY

HYONG GI MI Medium Grain White Rice 경기미 40 LB \$34.99	CHUNGJUNGONE Gochujang Brown Rice Red Pepper Paste 청정원 오푸드 순창 현미 태양초 찰 고추장 6.6 LB \$14.99
DONGWON Luncheon Meat Canned Ham 동원 런천미트 12 OZ \$2.99	HAIO Yuza Tea with Honey 해오름 유자차 2.2 LB \$5.99

100% 한국산 재료로 정성껏 만든 대한민국 대표김치, **종가집 김치!**

ENJOY KOREA'S FAVORITE KIMCHI HERE IN AMERICA!

Made with 100% Korean ingredients, **JONGGA Kimchi** offers taste you can trust!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 \$12.99	EM Minsaeng Ramen Instant Noodle EM 민생라면 4.05 OZ X 5 EA/PKG \$2.99	CHUNG JUNGONE Dried Seaweed 청정원 남해안산 청정미역 7.05 OZ \$6.99	SEMPIO Soy Sauce for Soup 샘표 국간장 31.4 FL OZ \$3.99	HOUSE FOODS Vermont Curry 하우스 버몬트 카레 MILD/MED. HOT/HOT - 8.11 OZ \$2.99
HANSANG Dongwoo Seasoned Small Octopus 한상 동우 얼짱 주꾸미 1.43 LB \$16.99	NIPPONHAM Karaage Chicken 니폰햄 카라아게 치킨 12 OZ \$5.99	MARUCHAN'S Mama Yaki Soba Stir Fry Noodles 마루찬 야끼소바 16.93 OZ \$2.99	ARIZONA FARM Honey Powder 아리조나 팜 허니 파우더 1 LB \$1.99	DONGWON Canned Tuna Light Standard 동원참치 라이트 스탠다드 5.29 OZ X 4 CANS/PKG \$8.99
HAIO Canned Whelk 해오름 골뱅이 캔 14.1 OZ \$5.99	HAITAI Matdongsan Peanut Cracker 해태 맛동산 10.58 OZ \$3.99	KÜHAUS Touch Screen Air Fryer 쿠하우스 터치스크린 에어 프라이어 WHITE/MINT - 5L \$109.99 \$65.99	HELLO HOME Stainless Steel Bowl 헬로홈 스테인리스 양분 38 CM \$16.99 47 CM \$24.99 56 CM \$34.99 \$12.99 \$17.99 \$24.99	Round Solid Seat Cushion 원형 솔리드 방석 BLUE/ORANGE/GRAY 45 CM \$6.99 \$4.99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0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사장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부사장 애나 정
617.780.1675
Boston Branch Manager
anna@bostonpremierrealty.com



이사 이제봉
781.654.5281
South Shore Branch Manager
jeb@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박성종
617.304.7001
Director & manager of Newton branch
sj@bostonpremierrealty.com



Steve Kwon
508.326.6285
Director of HR/Customer relationship
Steve@bostonpremierrealty.com



Kathy Eunsuk Song
413.313.4165
Manager of Hadley Branch
kathysong2019@gmail.com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오성빈
978.505.3736
osb@bostonpremierrealty.com



Nikkie Park
617.447.0591
nikkiepark@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최은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사라 유
617.838.5787
sara@bostonpremierrealty.com



Rick Shin
781.530.0034
ricks@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다이애나 김
617.271.2037
diana@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최
978.866.3248
gina@bostonpremierrealty.com



최진민
617.877.0387
jinchoi52@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콥 신 617.710.8836
jacob@bostonpremierrealty.com

앤드류 리 857.540.1588
andrew@bostonpremierrealty.com



피터 주
617.780.7839
peter@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송문주
213.503.0397
marcia@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최
413.507.1402
mickichoi@gmail.com



한혜숙
781.999.1214
hhan@bostonpremierrealty.com



샬리 임
781.690.4309
hyunmi@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진
617.538.6973
sujinhwang1@gmail.com



레이첼 김
617.852.7485
rachelkim@bostonpremierrealty.com



Jason Chen
978.277.8439
song@bostonpremierrealty.com



Henry Nguyen
617.803.8341
henry@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6.98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ng@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



PREMIER WORKS

좋은 사람들이 우리집처럼 여기고 정성껏 일하는 PREMIER WORKS. 각각 다른 레벨의 일에 맞는 인력이 투입되어서 비용을 절감합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인력이 공정 관리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합니다.

홈 리노베이션, 홈 익스텐션, 핸디맨잡, 배관, 전기, 난방, 커머셜/식당 디자인 시공.

“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a job well done. The floors look terrific! I know the project was a challenging one, but I'm happy to say you and your team more than met the challenge. In addition, a concern I've had with contractors is not following up with loose ends. I'm happy to report all follow up requests were completed in a timely manner. In short, I highly recommend and will continue to use Premier Works for all of my flooring needs!

Sincerely, Mr. M. Malden, MA ”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Property Management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건물을 관리해 드립니다. 건축가, 부동산, 건축시공 전문가들이 함께 관리 합니다. All size condo, single family, multi family, commercial, Hands Free, All in One Service

렌트비 관리, 유지관리, 테넌트관리



Premier Realty Group
617.515.1162
info@bostonpremierrealty.com

WEEKLY SPECIAL



10 Nouvelle Way

Listed Yesterday,
Offer Accepted Today !!

BLACK FRIDAY SPECIAL OFFER

(세일기간: 11월 30일까지)

“후지 안마의자가 강력한 첨단 기능으로 다시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DR. FUJI 8500



- 타명품 안마의자 장점만을 골라 만든 최상급 안마의자
- 프로 안마사 손길에 가장 근접한 마사지 체제
- 몸속 감속이 침투! 빈틈없고 확실한 마사지 요괴

BRAND NEW



EVERYCARE PKH107

더욱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 커피한잔의 가격으로 구입하세요~

SPECIAL PRICE ~~MSRP \$2,900~~ \$68/월 \$2,900

LG 삼성 김치냉장고 전품목 초대박세일

★ 김치냉장고 스페셜 세일 : 11월 30일까지 ★ (\$250 delivery fee → FREE limited time)

<p>Special Gift 달걀 스텔링 구입시 1. 달걀 10인분 받음 2. Clay Warmer 무료 증정</p>	<p>Special Gift LG 330L / LG 400L 구입시 귀뚜라미 자동 청소 (무료)</p>	<p>Special 2021 NEW MODEL 초대형 삼성김치냉장고 출시</p>
<p>418L \$3499</p> <p>418L \$3199</p> <p>330L \$2799</p> <p>330L \$2699</p> <p>127L \$849</p> <p>100L \$999</p>	<p>180L \$1099</p> <p>220L \$1599</p> <p>330L \$2349</p> <p>400L \$2699</p> <p>4.5cuft \$989</p>	<p>490L \$1899</p>

온수매트의 **절대강자**

경동 **NAVIEN**

- 1mm 두께의 초슬림 매트
- NTC 테크놀로지: 온도 제어 기술 구현
- 완벽한 이중(좌/우) 분리난방: 한 침대 위에 두 개의 온도!
- 미생물 번식 방지위한 살균모드
- 고온 모드 알림기능
- 자동정지 타이머

전통 온돌 문화의 새로운 매트역사!

특허받은 무차게 발열선

원자파 NO!
침방 흡수 NO!

- ◆ 고급스러운 디자인
- ◆ 강력한 난방효과
- ◆ 뛰어난 쿠션감

1. 한국형보다 30% UP! 2. 뒷면 미끄럼 방지처리
3. 두께 변화: 더 두꺼워짐 4. 매트 가장자리 보강

HITRONS™
LEXINGTON, MA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781.862.6867 / www.hitrons.com



간편하고 신속한 주택용자

안녕하세요, 켈리 김입니다. 개인주택을 꿈꾸는 모든 분들은 자신의 여러 상황 때문에 개인주택 소유의 꿈을 접기도 합니다. 20년간 겪어온 많은 모기지 대출 경험으로 완벽한 대출매칭을 설계해 드립니다.

현금 인출	모기지 재용자	후회없는 최상의 결과로 만족시켜 드립니다.
낮은 이자율	사전 승인	

상담 및 신속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연락주세요.

617.733.5014

Testimonial

투자용 주택 구입을 위해 용자 받을 곳을 알아보느라 몇 군데의 모기지 에이전트들과 통화했고 상담했었습니다. 이유는 주변에 용자가 나오지 않아서 고생했던 분의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모기지 회사나 은행을 정하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자율도 비교해보라는 리얼터분의 조언에 따라 여러 군데 연락을 해봤었는데 결국은 켈리님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켈리씨는 저희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용자 상품을 잘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용자 금액보다 좀 더 많은 용자금을 받도록 해주셔서 좀 더 수익이 많이 나는 큰 매물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맞춤 서비스가 편했습니다. 밤늦은 시간도 마다하지 않고 1시간이 넘도록 상담해 주셨고 이후에 서류를 준비 해야할 때에도 준비할 때마다 생기는 수많은 질문에도 늘 빠르게 답 해주시고 문자 주시는 등 밤늦도록 저를 위해 일해주시는 모습에 신뢰가 쌓였습니다. 용자 받을때 서류를 많이 준비해야 하고 갑자기 필요한 서류가 생겨서 걱정스러웠던 예전 경험에 비해 이번엔 정말 수월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 할 수 있었습니다. 켈리님의 능숙한 업무 처리 능력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용자 받으실 일이 있으시면 저희처럼 Ridus의 켈리님과 함께 하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Julie Jun
Boston Premier Realty
978.494.2043

저와 남편은 노후 대책으로 월세받을 집을 언젠간 구입하려고 생각만 하다가, 요즘 이자가 낮으니 좋은 찬스라는 리얼터 줄리 전님의 추천으로 앞으로 집값 오르고, 렌트가 잘 나간다는 동네에 오픈하우스 다니기 시작한지 두달만에 결국 원하던 멀티 하우스를 하나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서 클로징 끝나고 몇주 후에 바로 렌트비도 받았는데, 늘 노후대책 걱정만 하던 제가 하나의 숙제를 해결했다는 안도감에 기뻐했습니다. 리얼터 줄리씨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일사천리로 빨리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리얼터님을 그냥 믿고 따라갈 수 있었던건 줄리씨가 저희에게 그동안 보여준 신뢰와 실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6년전 저희 첫집을 구입할때도 얼마나 성실히 잘 도와주셨는지 집에 대해 하나도 모르던 저희에게 차근차근 모든 설명을 다해줬으며, 집값 오를만한 지역을 골라줘서 다들 저희 집 좋은 가격에 잘 샀다고 한답니다. 집 구입 이후에도 시시때때마다 집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기도 하고, 급하게 수리할게 생겼을때에도 연락하면 바로 일잘하는 핸디맨도 소개해준답니다. 저희 집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 잘 알고 있는 든든한 저희집 담당 리얼터랍니다. 자주 연락드려서 귀찮아 하지 않을까 걱정도 하지만 늘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 받아주어서 통화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죠. 집에 관해선 모든걸 맡아서 해주시니 집 관련 해서는 걱정이 없네요. 리얼터 줄리님과 좋은 인연이 저희의 노후대책까지 준비되서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켈리 김 Licensed in MA, NH, RI, FL, NJ
Kellie Kim Thielen

주택대출 전문가
nmls #2027241
617.733.5014
kkimthielen@radiusgrp.com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 식당 온라인 오더와 온라인 페이먼트를 한자리에서 해결
- 헤어와 네일 살롱의 온라인 예약과 온라인 페이먼트를 컴퓨터로
- 다양한 옵션을 완비한 디펜더블 컴퓨터로 간단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식당	살롱
온라인 음식 주문과 지불 epipay™	온라인 예약 관리 epiday™
온라인 매장 관리	온라인 매장 관리
고객 관리	고객 관리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GIFT CARD 프로그램	GIFT CARD 프로그램
종업원 관리	종업원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Dependable Computer is an authorized independent reseller of United POS Solutions, Inc."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thony (Dubleu) Parish of Korean Christ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미사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Contact: stadparish@gmail.com 617-538-2711

45 Ash St, Newton MA 02458 / 617-668-2711
stadparish@gmail.com / stadparishchurch.org
www.facebook.com/stadparish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총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중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원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6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3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Master Golf Professional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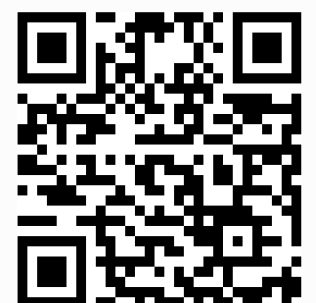


백신을 접종해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세요

무료 코로나-19백신을 접종받으세요
 신분증, 건강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백진접종장소를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찾으세요
[MASS.GOV/COVIDVACCINE](https://mass.gov/covidvaccine)



Asian American Civic Association



Eastern Bank

JOIN US FOR GOOD

매사추세츠한인회
THE KOREAN AMERICAN SOCIETY OF MASSACHUSETTS



매사추세츠

한동포 한하단
사랑 나누기

한인단결, 한마당 !!

2021

송년회

연예인들과 함께하는
신나는 디너쇼!!



MC 탈렌트
이정성



이미자 모상
가수 오령



가요계 디바
신나라



건아들 출신
이상완

입장권, 라플 수첨 와곤안 경품 대잔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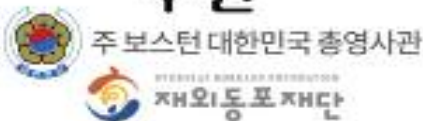
고국방문 왕복 비행기표 2장 김치냉장고 최신 65" TV 2대 압력솥
다양한 주방 상품들.. 재미있는 게임 댄스, 댄스, 댄스파티 ~

“ 행사장 입구에서 백신 접종 카드를 확인 합니다. ”

CROWNE PLAZA WOBURN Grand Ballroom
15 Middlesex Canal Park, Woburn, MA 01801
2021년 12월 18일 (토) 저녁 6시 - 11시

입장권 (\$ 100) 구입 과 후원 상담
한인회 : 978-807-1622 / 978-461-2424
서부지역 : 646-220-3314
이메일 : masskorean2021@gmail.com

후원



엄산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후원 (행사장입구 Photo Zone 운영)



안순용 서태원 이계규 이경일 이기원 김경연의장

“ 행사 의 나눔을 위한 후원 받습니다. ”
978-807-1622 / 978-461-2424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661) 인덱스 펀드 30년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지난 30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일반 투자자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 것을 추천했다. 결과를 간단히 소개하면 1990년 새해에 \$10,000 투자가 2020년 말 \$210,000으로 불어난 것으로 약 21배나 증가했다. 일반 투자자는 물론 감히 장담하건대 어느 투자 전문가도 이렇게 높은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인덱스 펀드를 선호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이지만, 그중 으뜸은 투자 경비 때문이다. 일반 투자자는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 매월 받아보는 재정문서에도 나오지 않는다. 금융상품을 파는 사람이나 투자를 도와주는 사람도 경비에 대해선 자세히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금융회사는 돈을 벌고자 한다. 간단하게 말해서 일반 투자자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다. 이런 이유로 놀라운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투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끊임없이 광고하고 선전하는데 일반 투자자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기로 결

정했다면 금융회사는 매우 낙담할 것이다. 금융회사가 실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투자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높은 커미션(Commissions), 화려한 사무실(Fancy Offices), 공짜 휴가(Expense-Paid Trips), 그리고 높은 봉급(Sky-High Salaries)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만든 투자 상품에는 커미션은 물론 100여 페이지(prospectus)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경비와 계약을 해약하면 부과되는 벌과금 등이 있다. 일반 투자자가 선호하는 뮤추얼 펀드의 경비도 약 0.95%이다. 그러나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금융상품에서 부과하는 경비(투자자가 인식하기 어려운)가 전혀 없고 인덱스 펀드의 경비는 약 0.05%로 매우 저렴하다.

재정설계사들이 보는 잡지(Financial Planning)에 제목이 “연말 나눔으로 유혹하는 한 재정설계사가 당국으로부터 사기 범죄에 직면(Advisor who touts his Holiday Giving faces SEC fraud charges)”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연말에 25,000명에게

칠면조로 식사를 대접하며 마음이 선하고 좋은 사람이란 인상을 주지만 뒤에선 고객의 돈으로 본인의 욕심을 채운 것이다.

금융당국(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은 재정설계사인 키스 스프링어(Keith Springer)는 북카주에서 투자 방송을 하며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어뉴이티(Annuities)나 다른 투자 상품에 고객의 돈을 투자했다는 것이다. 고객의 대부분은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가 가까운 사람을 대상으로 투자에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하루가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한인 동포는 투자상품의 속 내용을 알기 매우 어렵다. 금융상품 파는 사람 말만 듣고 혹은 막연히 믿고 피와 땀인 소중한 돈을 투자한다. 자그마한 은퇴자산이 불어나기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부과되는 많은 경비로 나의 돈이 불어나지 않는다.

최근 금융상품의 재정문서를 받아보면 나의 돈이 불어난 것을 확인하고 나의 투

자 상품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12년 주식시장은 연평균은 15% 이상으로 상승했다. 투자한 원금이 \$10,000 이었다면 \$50,000 이상으로 5배가 불어났다. 금융상품이 비슷한 비율로 불어났는지를 비교해 봐야 한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일단 알게 모르게 나가는 경비가 전혀 없다. 원금보장 한다는 금융상품에 부과되는 경비가 얼마인지, 개별적인 주식을 선택하거나 분석할 필요도 없고, 주식시장 상황에 민감할 이유도 없고 잠도 편히 잘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다.

인덱스 펀드 투자는 흥분되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매우 지루한 투자이다. 그러나 코로나가 극성이던 작년에는 18% 그리고 올해 현재 27% 상승이며 지난 30년 연평균 수익률 10.72%가 인덱스 펀드(S&P 500)의 수익률이다. 이것이 제대로 하는 투자이며 부를 쌓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다. 독자 여러분도 인덱스 펀드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서 운용하기를 다시 한번 추천한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22세 풍월주(風月主) 양도공(良圖公)(13)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효장(孝長)과 유장(劉長)의 어머니입니다. 국법에 선종(仙種)을 낳은 여자는 불기를 내놓고 매를 맞는 도리는 없습니다” 했다.

공이 노하여 말하기를 “너의 죄는 곤장 세대에 해당하나 너의 말 때문에 곤장 세대를 더 한다” 했다. 이에 그 치마를 내리고 묶었다. 보랑(寶良)이 간하여 말하기를 “염부(廉父)가 알면 마음이 상할까 염려됩니다. 우리들이 어찌 지위로서 사람을 다스리고 도리어 불효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했다. 공이 말하기를 “이 사람을 다스리지 않으면 무리를 징계할 수 없다” 했다. 이에 세기를 불러 꾸짖어 말하기를 “사람의 지아비가 되어 처를 바로 잡지 못했으니, 너의 죄는 파면해야 마땅하다. 너의 처를 곤장치려 했는데 화주(花主)가 중지시켰으니 마땅히 너를 파면함으로써 너의 처를 징계할 것이다” 했다.

도리는 세기가 파면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울면서 말하기를 “첩이 불기를 맞을 것이니 지아비를 파면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했다. 공이 웃으며 말하기를 “부부의 의리는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만약 네가 세기를 나와 같이 섬기고 감히 방자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불기맞는 것을 면하고 너의 지아비를 보호할 수 있다” 했다. 도리가 이로써 그 지아비에게 굴복하여 방자함이 변하여 순종하게 되었고 다시는 첩들에게 강새암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다른 낭두의 처들도 모두

선신을 믿고 지아비에게 방자할 수 없게 되었다. 낭두들이 서로 축하하여 말하기를 “신주(新主)의 덕화(德化)가 인방까지 깊이 미쳤다” 하고 공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풍월주의 첩으로 있으면서 기세가 등등했던 도리는 자신이 모시던 풍월주의 명으로도 두에게로 시집가게 되었으니 강등된 기분에 자신의 처지를 받아드리기 쉽지 않았으리라 본다. 그것도 상통하여 이루어졌다면 행복했겠지만 무슨 연유인지 강제성이 있어 보인다. 게다가 방자한 도리의 성품은 새 남편 세기를 노복(奴僕)처럼 폭언과 악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갓 풍월주로 취임한 김양도가 선문으로 잡아들여 체벌을 하려고 하자 선종을 낳은 여자는 불기를 내놓고 맞는 법이 없다고 항변했다. 도리는 일찍이 17세 풍월주 김염장의 첩으로 들어가 두 아들을 낳았다. 위의 인용문 가운데 도리가 국법을 운운한 것으로 보아 풍월주의 아들(仙種)을 낳은 여인들은 그렇지 않은 여인들과 비교하여 상벌에서도 많은 특권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 규범과 염장과 의 관계를 고려해서 화주(風月주의 부인)인 보랑(寶良)은 염부(廉父)(17세 풍월주 김염장을 가리킨다)의 심기를 염려하여 도리의 사죄(赦罪)를 간청하였다. 22세 풍월주 김양도와 부인 보랑은 이부동모의 자매로서 어머니가 양명공주이다. 양도의 아버지는 김모종이고 보랑의

아버지는 설보종이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양명공주가 김염장과 사통하여 아들 장명을 낳았기에 그들은 장명과도 이부동모의 형제/남매간이다. 그래서 보랑이 남편에게 악행을 저지른 도리의 죄가 무겁지만, 한때는 김염장의 첩이었고 염장의 두 아들을 낳은 도리의 선처를 간청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도리는 안중에도 없었던 남편이었지만 낭두 중에서 (개편하지 전까지) 가장 직급이 높았던 도두(都頭)의 직에서 파면 당한다면, 범부의 처로 처지가 더욱 초라하기에, 지은 죄를 뒤우치고 각성하여 새로운 남편 세기에게 순종하고 세기의 다른 첩들에게도 강새암(시기, 질투)하지 않기로 맹세하고 나서야 불기도 맞지 않았고 세기의 도두직도 유지할 수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낭두들의 처는 모두 혼전에 선문에서 봉화로써 상선이나 상랑(화랑)들과 색사를 한 후에 낭두와 결혼할 수 있었기에, 결혼 후에도 선(性) (정례/색사를 나누는 상선 또는 상랑/화랑)을 믿고 남편인 낭두들에게 방자하게 굴었던 처들이 있었음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도리의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낭두의 처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김염장은 낭두들의 딸이나 누이를 많은 첩으로 두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자신의 아들을 둘이나 낳은 아름다운 첩 도리를 도두(都頭)(7등급으로 나누어진 낭두 중에서 가장 높은 직급이었다. 김양도가 풍월주로 취임하면서 도두 위에 대도두(大都頭)와 대노두(大老頭)를 더해 9등급으로 고쳤다) 세기(世己)와 혼인시켰다. 새로이 남편이 된 세기보다 연상이었던 도리는 오만방자하였다. 남편에게 불순종은 물론 폭언에 더해 이어지는 악행의 과오는 안방을 벗어나 낭문의 모든 낭두들이 알게 되었다. 그래서 풍월주 김양도가 도리를 잡아벌 주려는 내용이 화랑세기에 실려있다.

[그때 도두(都頭) 세기(世己)의 처(妻) 도리(道里)는 어려서부터 아리따운 명성이 있었다. 염장(廉長)공의 두 아들을 낳고 나와서 세기의 처가 되었다. 세기보다 12살이 많았다. 세기를 노복과 같이 보아서 그 뜻에 맞지 않으면 세기를 매질했는데 못하는 것이 없었다. 세기에게는 첩이 3인 있었는데 첩이 아들을 낳으면 도리가 질투를 하고 철기(鐵器)로 세기를 난타하여 세기는 일어나서 낭무(郎務)를 볼 수 없었다. 공이 노하여 도리를 잡아다 막 불기를 치려 하는데, 도리가 말하기를 “첩의 죄가 비록 중하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고정 금리 모기지 vs 변동 이자율 모기지

오랫동안 집을 사려는 바이어들의 열띤 경쟁으로 셀러가 내는 마켓 가격에 훨씬 높은 웃돈은 마다 않고 더 늦기 전에 집을 구하려는 바이어들의 열성을 볼 수 있습니다. 집값은 매달 눈에 띄게 오르고, 만만치 않은 콘도/하우스 렌트비는 그냥 없애지는 돈이고, 그렇다면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장만해야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바이어를 부추기는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여전히 낮은 모기지 이자율을 놓칠세라 바이어의 마음이 다급합니다. 주택 구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낮은 이자율을 놓치지 않기 위해 주택 구매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30년 고정 금리 모기지 론에 대해서 더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30년 고정 금리 모기지란?

말 그대로 30년 상환 기간과 고정 이자율의 모기지 론입니다. 금리는 처음 대출을 받을 때 결정되며, 30년 동안의 상환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 됩니다. 이것이 고정 모기지의 특징입니다. 매달 페이먼트에서 지불금중 일부는 이자로 가고 그 중 일부는 융자한 원금을 줄입니다. 전형적인 30년 고정 금리의 특징 중 하나가 상환 기간의 첫 해 동안은 주로 이자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상환 기간의 초기 기간 동안은 원금을 거의 삭감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가면 서 이것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페이먼트에서 더 많은 돈이 원금 감액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정 이자율 모기지만 있을까요? 훨씬 적은 분들이 사용하지만 변동 이자율 모기지(Adjustable Rate Mortgage)도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핵심적인 내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금리 모기지(Fixed Rate Mortgage)

1. 이자율은 대출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 됩니다.
2. 지불 금액도 월별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3. 원금과 이자의 비율은 매월 약간씩 다를 것입니다. (지불 금액은 고정)
4. 비율이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이점을 제공합니다.
5.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모기지는 30년 고정 대출입니다.
6. 일반적으로 수년동안 집에 머무르고 (동일한 모기지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을 최선의 선택입니다.

변동 이자율 모기지 (Adjustable Rate Mortgage - ARM)

1. 금리는 대출 기간 동안 미리 결정된 간격으로 변경됩니다.



2. 예측할 수 없는 이유는 요금이 어떻게 조정될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3. ARM 대출은 한달에서 다음 달로 변할 수 있는 이자율을 제한하는 이자율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4. 처음 몇년동안 고정 금리가 적용된 후 금리가 조정되기 시작합니다.
5. 일반적인 예로는 3/1 ARM 및 5/1 ARM 이 있습니다. 첫번째 숫자는 고정 금리 기간을 나타냅니다. 두번째 숫자는 고정기간 이후의 조정 진도연도를 나타냅니다.
6. 주택 소유자가 몇년 동안만 집에 머무를 계획 일 때 가장 잘 사용 됩니다. 고정/변동이자율 중에 본인에게 어떤 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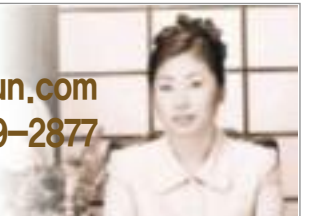
그램이 맞을지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11월 28일 - 12월 4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마음이 통하니</p> <p>●운수: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차근차근 잘 살펴보세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만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금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늘 요즘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큰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큼. ●애정: 마음을 활짝 열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봐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니 편해집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8, 2일 길일, 30, 3일 주의.</p>	<p>소띠 우연한 만남이 예상되는</p> <p>●운수: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만족도가 점점 상승할 것입니다. 길게 말을 안 해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니 편안하겠습니다. ●금전: 발품을 팔면 좋은 물건을 싸게 사게 되니 크게 절약이 됩니다. 돈을 쓰면서도 이익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들겠습니다. ●애정: 우연한 만남이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용기를 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세요. 97, 85, 73, 61, 49, 37년생은 29, 3일 길일, 1, 4일 주의.</p>	<p>범띠 사실 여부를 떠나서</p> <p>●운수: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아서 갈등하게 됩니다. ●금전: 뭔가를 사려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시세보다 턱없이 싼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애정: 사실 여부를 떠나서 한 번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30, 1일 길일, 29, 2일 주의.</p>
<p>토끼띠 뜻밖의 행운이 오니</p> <p>●운수: 남의 말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소신대로 일 처리를 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금전: 투자나 매매에 있어서 큰 기쁨이 따릅니다. 매사를 순리대로 처리하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애정: 메이크업이나 머리 모양의 변화 등 외모에 변화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뜻밖의 행운이 오니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세요. 99, 87, 75, 63, 51, 39년생은 1, 4일 길일, 30, 3일 주의.</p>	<p>용띠 에너지를 재충전해야</p> <p>●운수: 툼툼이 쉬면서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합니다. 더 이상 무리하면 결국은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금전: 촉만 믿고 거래하다가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위험성을 고려해서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애정: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세요. 지금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 일이라도 금방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 3일 길일, 28, 4일 주의.</p>	<p>뱀띠 흔들리지 말아야</p> <p>●운수: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스스로 초라해지고 불행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금전: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태산이 아니라 돌부리입니다. 사소한 것이라고 너무 가볍게 여기다가는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애정: 이미 연인이 있거나 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금방 들킬 수 있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30, 3일 길일, 2, 4일 주의.</p>
<p>말띠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p> <p>●운수: 칭찬을 해줄 만한 일이 있으면 제대로 해주세요. 칭찬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묶여두기보다는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상태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은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 상대가 병 주고 약 주는 행동을 합니다. 마음이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 4일 길일, 30, 3일 주의.</p>	<p>양띠 새로운 변화를</p> <p>●운수: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주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기에 적합한 때입니다. ●금전: 장바구니 부담을 크게 줄여줄 만한 일이 있겠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애정: 멋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할만한 사람을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9, 1일 길일, 28, 4일 주의.</p>	<p>원숭이띠 벌집을 건드린 격이</p> <p>●운수: 가만히 내버려 두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괜히 벌집을 건드린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 금전 문제로 서로 불편해질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길게 대화를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 상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3, 4일 길일, 29, 2일 주의.</p>
<p>닭띠 멀리서 찾지 말고</p> <p>●운수: 현 상태에서 탈피할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면 좋은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금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얻는 것이 있습니다. 매매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왔으니 잘 활용 하면 이득으로 연결됩니다. ●애정: 두 사람의 사이가 많이 진전됩니다. 싱글은 가까이에 연인이 있으니 멀리서 찾지 말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93, 81, 69, 57, 45, 33년생은 29, 2일 길일, 30, 3일 주의.</p>	<p>개띠 첫걸음을 시작해야</p> <p>●운수: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첫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금전: 들어올 돈이 자꾸 미뤄져서 마음이 답답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이득이 따라올 것입니다. ●애정: 훌륭한 사랑이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지나간 추억에 젖어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30, 2일 길일, 28, 1일 주의.</p>	<p>돼지띠 세심한 배려가 필요</p> <p>●운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씩 순서를 정해서 차근차근 처리해야 합니다. ●금전: 나 살라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자신에게도 큰 득이 되지 않습니다. ●애정: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한 행동이 상처를 주거나 불편을 끼치는 일이 될 수 있으니 잘 살펴야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 4일 길일, 29, 2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스시맨 풀타임, 파트타임 구합니다.
T. 508-655-3951, 978-494-2712

풀타임 캐셔 구함.
벌링턴몰내 칠리 필리스테이크
T. 781-778-8665(제시)

렉싱턴에 있는 치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이 없으신분은 트레이닝 해드립니다.
T. 781-859-9218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좋은 조건으로 리틀부산 식당 판매합니다.
렌트 저렴, 좋은 위치, 리커 라이선스
주인 은퇴, 상담 환영합니다.
T. 978-897-5107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CNN "올해 한국 드라마 끝내줘...지옥, 새로운 오징어 게임"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대성공에 이어 '지옥'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하자 외신들은 '지옥' 줄거리를 소개하며 향후 흥행 가능성을 진단했다.

CNN 방송은 23일(현지시간) "올해 한국 드라마들이 끝내준다"라며 "지옥은 새로운 오징어 게임"이라며 평가했다.

CNN은 이어 "넷플릭스의 최신 한국 드라마 지옥이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며 지옥을 다크 판타지 장르 드라마로 소개했다.

한국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지옥'은 평범한 사람이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지옥행 고지를 받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그린 이야기다.

영화 '부산행' 등으로 자신만의 디스토피아를 그려온 연상호 감독이 최규석 작가와 함께 원작 웹툰을 집필했고 이번 드라마 연출과 각본도 맡았다.

지옥은 이날 넷플릭스가 공식 발표한 15~21일 주간 글로벌 톱 10 순위에서 4천348만 시청 시간을 기록하며 비영어권 TV 프로그램 부문 1위에 올랐다.



할리우드 매체 데드라인은 지옥과 미국 애니메이션 '아케인'이 넷플릭스의 새로운 주간 집계에서 순위가 경총 뛰어올랐다고 소개한 뒤 지옥이 아케인 시청 시간을 능가했다고 전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영어권 TV 프로 1위에 오른 아케인은 3천842만 시청 시간

을 기록했다.

영화 전문 매체 인디와이어는 "지옥은 여러분의 영혼을 겨냥하는 최신 한국 블록버스터 시리즈"라며 "이 작품의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은 집단적인 무력감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대중의 감정을 포착해낸 것"이라고 평했다.

스파이더맨에 아이오닉 5 · 투싼 나온다...차량 액션신에 등장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다음달 15일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봉하는 마블의 액션 블록버스터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에 현대차 [005380] 아이오닉 5와 투싼이 등장한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와 투싼이 영화 속 주요 장면에서 등장하면서 다양한 차량 액션신을 선보인다"며 "아이오닉 5와 투싼은 극적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역동적인 볼거리로 관객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현대차는 작년 5월 스파이더맨을 제작한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그룹 '소니 픽처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에 개봉하는 스파이더맨은 양사 파트너십의 첫 번째 작품이다.

스파이더맨은 지난 8월 첫 예고편이 공개됐으며, 이 예고편은 하루 만에 조회수 3억5천500만을 돌파하며 역대 영화 예고편 최고 수치를 기록한 만큼 흥행 기대가 큰 작품이라고 현대차는 전했다.

앞으로 현대차는 스파이더맨을 활용한 다양한 영화 마케팅을 추진한다.

min22@yna.co.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보스톤코리아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연천, 허브빌리지를 방문하며...

경기 북부 연천에 소재한 '허브 빌리지 (Herb Village)'는 내가 살던 동네에서 30분을 운전하고 가면 만날 수 있는 내 어릴 적 고향이기도 하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 살다가 미국에 와 30여년을 살면서 한국 방문 중 '허브 빌리지'를 두 번 찾았다. 처음에는 2009년도 정도에 가족들과 함께 찾았고, 두 번째는 2017년 봄에 40년 만에 만난 초등 친구들과 함께 찾았던 추억이 있는 곳이다. 이제 고향 시골 동네를 찾으면 어릴 적 보았던 어른들은 모두 안 계시니, 고향의 하늘을 만나며 어릴 적 그리움을 달래고 돌아오곤 한다.

어제(11/23/2021) 한국 뉴스를 보면서 향년 90세 전두환 씨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되었다.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참혹하고 잔인한 살상의 그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들을 어찌 귀로만 들을 수 있었겠는가. 그 일들이 내 가족이고 친구이지 않았던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과거이며 씻을 수 없는 죄인 것이다. 그런데 90

평생을 살다 이생을 떠나 저 세상으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사과 한마디 없이 떠나고 말았다. 그 당시 유가족들의 오열은 다시 시작됐다.

10여 년 전 처음 '허브 빌리지'를 방문했을 때, 막내 언니가 여기 주인이 전두환 대통령 아들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토록 아름답게 꾸민 이 너른 꽃밭에 몰염치하고 과렴치한 그 부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것이 나를 당황하게 했었다. 경기 북쪽 의정부의 이름만 들어도 내 고향이라 느껴져 가슴이 뛰곤 하지 않았던가. 그 옛날 경원선을 타고 다니던 때를 생각하면 그랬다. 의정부, 동두천, 연천 이렇게 기차역에서 타고 내리던 사람들의 정스런 얼굴과 느린 열차가 생각난다.

"허브 빌리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2004년 경기도 연천 '허브빌리지' 부지를 매입할 당시 시공사 직원을 내세워 차명 계약을 맺은 것이었다고 한다. 부지 일부는 대금 지급까지 완료하고도 1년 가까이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몰래 보유했다

는 의혹도 제기됐었다고 한다. 재국씨는 2004년 2월 경기도 연천군 북삼리 221번지 땅 1만2873㎡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 명의자는 재국씨가 아닌 시공사 직원이었다고 한다. 재국씨는 1년 뒤인 2005년 4월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했다고 한다.

전 씨 일가의 별장으로 활용되던 경기 연천군의 '허브빌리지'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매각된다. 허브빌리지는 전씨의 미납 세금 추징을 위해 검찰이 압류한 허브 농장이다. 임진강 인근에 자리잡은 허브빌리지는 일대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되었다. 재국씨가 부지 매입을 시작할 때인 2003~2004년 북삼리 221번지 공시지가는 ㎡당 892~1140원이었다. 그러나 대지로 형질이 변경되고 토지개발지역으로 묶이면서 공시지가가 ㎡당 11만원으로 100배가 뛰었다.

'허브 빌리지'는 토지 6만㎡, 건물 7260㎡의 규모에 허브 온실과 레스토랑, 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이곳은 사실상 전씨 일가

의 별장 겸 연회시설로 사용됐다. 2009년엔 전씨 부부가 5공화국 시절의 고위 관리 100여명을 초청, 결혼 50주년을 기념하는 금혼식을 이곳에서 열기도 했었다고 한다. 검찰이 미납 세금 추징을 위해 이곳을 압수수색하던 당시 전씨의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의 개인 집무실과 비밀 창고에서 대형 불상과 고가의 미술품이 대거 발견되기도 했었다고 한다."

2014년에 '허브 빌리지'는 새 주인을 찾았다고 한다. 2017년 한국 방문 중에 40년 만에 만난 초등학교 친구들과 그곳을 찾았다. 보라색 라벤더 꽃밭은 가히 환상적이었다. 내 고향 지역에 이토록 아름다운 꽃 농원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기쁘고 감사했다. 또한, 이제는 새 주인이 이 꽃 농원을 가꾸고 있다는 말에 마음이 한껏 흐뭇해졌다. 남.북이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한(恨) 맺히고 미움 서린 땅, 삼팔선선이 그려진 DMZ 그 땅에 허브향 가득히 채우니 감사했다. 그 고운 향 바람에 흘러 북녘에 왔는지 말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훈훈한 한국말**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우리 말을 갈고 닦자. 오래전에 들던 말이다. 말모이라 했는데, 사전(辭典)을 뜻한다.

한국 대통령 연설문을 작성하던 이가 쓴 글이다. 연설문에 자주 등장하는 낱말들을 모았다. 말(言)하다인데 때에 따라 경우에 따라 달리 쓴다고 했다. 몇 단어를 열거했다. '대화, 언급, 표명, 피력, 강조, 희망, 설명, 반박, 토로, 설득, 주장, 권유, 호소 등등.' 어감은 다르다.

많은 말들은 일본에서 번역됐다. 서양의 낱말들은 번역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중 몇몇이다. '사회' '개인' '근대' '미(美) '연애' '존재'... 150년 전 일본은 서양의 낱산 개념들을 번역하며 완전히 새로운 말들을 만들어냈다 (김태익, 조선일보, 2018.06.19)

누구는 한글이 중국어 발음기호라 폄하했다. 한술 더떠 중국말 발음을 통일하기 위해 만들었고, 한국어 표기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도 했다. 가당치 않은 말인데, 기가 차다. 세종대왕님 훈민정음 서문을 다시 읽어야 한다. '나랏말씀이 중국과 달라, 서로 사맛

지 아니할새' 상당한 한자어 말들을 순 한국어(말)로 대체 할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테니, 그대로 우리말이 되었다고 우겨야 겠다. 영어로는 어렵지 않게 번역할 수 있겠다.

"Squid Game" Hida Heart-breaking Detail That Non-Korean Speakers Probably Missed" 영자신문 기사 제목이다. 네이버 번역기에 돌렸다.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놓쳤을지도 모르는 가슴 아픈 디테일을 숨긴 오징어 게임.' 번역하고 나니 오

히려 어색하다. 차라리 "오징어 놀이" 엔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이들이 놓쳤을 수도 있는 가슴아픈 디테일/사연이 숨겨져 있다.' 이 역시 자연스럽지는 않다.

한국어는 여전히 진화중이다. 한편 비속어라 하는데, 특히 짤이 그렇고, 씬이 그러하고 감보도 그러하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말들이 여전히 생존한다면 이런 말들도 여전히 통용될게다.

훈남은 훈훈한 남자라는 말이라 했다. 방탄소년단이다. 그들이 한국말로 연설할 적에, 누구는 영어

로 말해달라 했다던가. 방탄소년단의 당찬 대답이다. 듣는 당신이 한국말을 배워라. 역시 방탄소년단은 말하는 것도 훈남스럽다. 요새 한글뿐 아니라 한국말을 가르치는 외국인 교사들도 많단다.

한글을 세종대왕님이 창제한 건 익히 안다. 세종대왕님도 한창 젊은 시절엔 훈남이었을터. 그나저나 한국말은 어디서 왔나?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마가 5:41)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Overseas Voting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세계 속의 한국인

민주주의 꽃 피우다



Koreans around the World,
Democracy Blossoms!



투표하려면,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To vote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overseas absentees and voters are required to complete
the registration in advance.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Overseas Absentee Report Period
October 10, 2021 – January 08, 2022

**2021.10.10.~
2022.01.08.**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Registration for Overseas Voters
by January 08, 2022

~2022.01.08.까지

신고·등록신청 방법

How to Register as
an Overseas Absentee or an Overseas Voter

- 인터넷 이용(ova.nec.go.kr)
On the Internet(ova.nec.go.kr)
- 공관방문 / 순회접수
Visiting the diplomatic mission or
a mobile office
- 우편 이용 / 전자우편(e-mail) 이용
By post or e-mail

투표기간

Voting Period
February 23, 2022 – February 28, 2022

2022.02.23.~02.28.

-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 The voting days may vary by diplomatic mission
within the set overseas voting period.

신고·등록신청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Report or register quickly and
easily on the Internet!



◀ 신고·등록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Go to the website for
the registration
ova.nec.go.kr

-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참고
- ※ Refer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verseas Voting (ok.nec.go.kr) 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websites for more information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찬 바람 불면 찾아오는 관절 통증 관절만의 문제 아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시모세군, 류마티스 관절염

이번주 휴람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류마티스 내과 최지영 과장의 도움을 받아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에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면역세포 활동에 관여하는 에너지는 부족하게 된다. 그 결과 면역기능이 감소하고,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관절 통증도 심해지는데, 기온이 낮아지면 관절 주변의 혈류량 감소로 혈관과 근육이 수축하고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통증을 더 쉽게 느낀다.

간혹 관절 통증을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라 여기고 방치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등 잘못된 방법으로 자가 치료해 병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 관절 통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진단을 받고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치료할 수 있다.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질환의 정도와 상태에 따라 손상된 관절만 치료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체계 이상에 의한 염증이 원인으로 관절염은 다양한 증상 중 하나다. 따라서 증상

을 방지하거나 단순히 통증만 관리할 경우, 전신에 영향을 미쳐 관절 변형은 물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내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

관절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 중 하나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명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진 않았지만, 가족력, 불규칙한 생활 습관,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해 면역체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이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외부의 위협 인자를 공격해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체계가 오작동하면서 자신의 조직을 공격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자가면역질환 중에서도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세포가 활막을 공격한다. 활막은 관절강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 활액이라는 윤활액을 분비해 마찰을 줄여 관절을 보호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면 관절 손상과 함께 통증, 열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예전에는 자가면역질환이 희소 질환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생활 습관 변화,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 요인 탓에 발병률이 높아졌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25만 명 이상 류마티스 관절염(질병코드 M05, M06)으로 진단받고 있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3배 정도 많다.

특히 다양한 합병증의 위험성도 높는데, 대한류마티스학회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26%가 심혈관계 질환, 15%가 내분비 질환, 5.6%가 호흡기 질환 등 동반 질환을 겪고 있으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약 40%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마티스 관절염 VS 퇴행성 관절염 증상과 치료 달라, 구분해야

퇴행성 관절염과 구분되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적인 증상은 아침에 손 마디가 뻣뻣한 강직이나 통증이 1시간 이상 지속하는 ‘조조 강직’이다. 또한, 모든 관절에 발병할 수 있지만, 주로 손가락, 발가락, 손목, 팔꿈치 등 비교적 작은 관절에 좌우 대칭, 또는 다발성으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피로감, 식욕부진 등 전신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고관절 등 주로 몸의 하중을 많이 받는 관절에 국수적으로 발생하며 노화나 비만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50대 이상 환자가 많다. 치료는 관절염의 진행 정도에 따라 약물·주사 치료, 내시경 치료,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다양한 치료법을 적용해볼 수 있다.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 연령에서 나타날 수 있고, 30~50대 환자가 많다. 초기 관절 손상이 빠르게 진행되며 증상을 방지할 경우 관

절의 변형과 함께 폐, 심장, 신장, 혈관 등 주요 장기까지 침범해 치명적인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직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관절 변형과 후유증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치료 계획을 세우고, 통증과 염증을 감소하는 항염증제, 면역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약물치료를 우선 시행한다. 치료와 함께 관절 보호를 위한 근력운동, 유산소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이 도움되며 증상을 악화하는 흡연은 반드시 피하기를 권한다.

“류마티스 관절염”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제1회 뉴잉글랜드지역 동해·독도 지명표기 조사·활동보고 공모전 수상작

부문대상(독도지킴이상, 동해지킴이상)

▶▶27면에 이어서

being under Japanese rule, Korea fought with allied forces in China and the U.S., and finally, in August 1945, Japan surrendered.

However, Japan did not give up on Dokdo, and even to this day, Japan is claiming that Dokdo is part of Japan and calls it Takeshima. Of course, Takeshima, which means "bamboo island" is probably the least befitting name because no bamboo tree ever grew on Dokdo. In addition, a four-part map made by Korea back in 1770 shows Dokdo clearly being a part of Joseon territory.

History of Dokdo

In the 17th century, Japanese maps record Ulleungdo and Dokdo as being Northwest of Oki Island in the region labelled as "Handang". The Hoten map shows Handang as being both separate from Japan and as a part of Kangwon Province in Korea. This proves that Ulleungdo and Dokdo were outside of Japanese territory until Dokdo was annexed in 1905. Japan also has records of how they withdrew its territorial claim to Dokdo in 1965 in the Korea-Japan Treaty on Basic Relations and bilateral fisheries agreement.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t is also stated that the islands will be "returned" which implies that Japan is returning to Korea what was originally theirs prior to Japanese

aggression and occupation of Korea. These are one of the many reasons why Dokdo belongs to

Korea.

Why "East Sea" is the Correct N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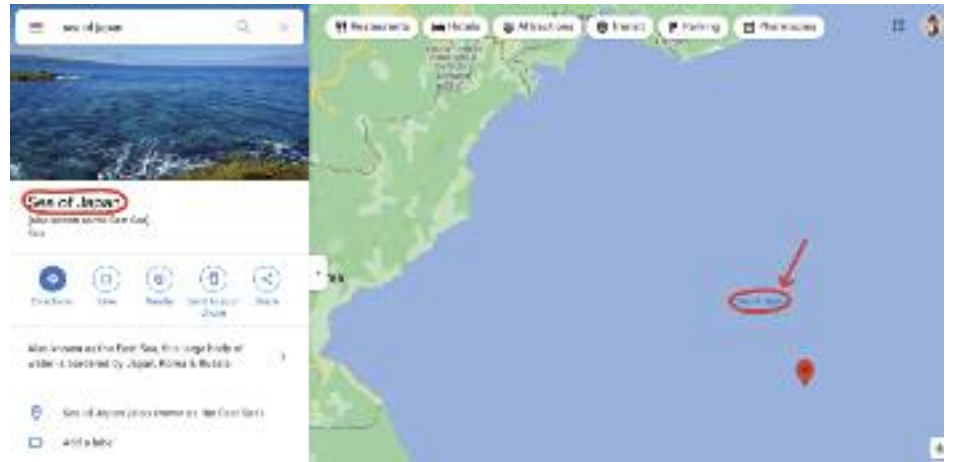
And because Dokdo and Ulleungdo belong to Korea, which is right in the middle of the body of the water between Korea and Japan, East Sea would actually be a more appropriate name, especially because of its generality.

Japanese people use the defense that the "Sea of Japan would not be there if Japan did not exist, it would just be the Pacific Ocean," which to that, Hawaii also does not own its own sea title although it is also in the Pacific Ocean. Some people argue that the name "East Sea" is too vague and meaningless. But then how do they explain other seas named North Sea, Red Sea, Black Sea, Yellow Sea, etc. More arguments from people is that Koreans are just being petty and jealous of Japan. If this

were true, however, we would demand to name the sea as the "Korean Sea."

My Personal Efforts, Striving for Changes

As with many other issues, changes take a long time and great effort because people often cannot reach a sensible agreement. And even when people do reach a consensus, they resist change because they do not like the discomfort or the extra effort required with changes. For example, see how upset Japanese are about Apple maps removing the "Sea of Japan" label.



As seen on a website for petitions, Japanese people are insisting that the removal of the "Sea of Japan" label is a discrimination against Japanese, when in reality the label was flawed in the first place.

Removing the label does not resolve the issue though. People still refuse to accept the fact that the correct name is East Sea.

Therefore, we must make every effort to keep Dokdo and reclaim the name for 동해, the "East Sea." And the best way to achieve these goals is to strengthen Korea as a nation in the international arena. This is why the Korean wave is so vital. As a student interested in art, I often draw and share

my artwork that promote Korea, including Dokdo.

The second way to make these changes is to educate non-Korean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is effort at least in small part, I presented information about Dokdo and the East Sea to my 7th grade Social

Studies class and led a group discussion with our teacher, Mr. Wesoloski. Thankfully, Mr. Wesoloski was very supportive and I was able to help my classmates understand and agree that Dokdo is a Korean territory and the correct names are Dokdo and East Sea. It was rewarding that I could educate my classmates on this topic about which I feel very strongly.

특별상 - Pre school 공동작품



각 학년별 금상



1학년 금상 장물



2학년 금상 최은경



3학년 금상 정윤지



4학년 금상 박하늘



5학년 금상 주사람

제1회 뉴잉글랜드지역 동해·독도 지명표기 조사·활동보고 공모전 수상작

각 학년별 금상

East Sea and Sea of Japan Essay

7학년 금상 최재운

What is the body of water called that is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Japanese Archipelago? Koreans call this sea, the "East Sea", while Japanese people use the name "Sea of Japan". But, most citizens of the world know the sea's name to be the "Sea of Japan". Which is pretty tragic, seeing how Korea's "East Sea" was the first name to belong to the maps of the world, appearing on even Japanese maps, saying "East Sea" or "Joseon Sea", clearly stating that the Korean name was correct.

Well, you may be asking yourself, why does the world know and use the Japanese name "Sea of Japan" a lot more than the Korean name "East Sea"? Well, people started using the name "Sea of Japan" from IHO's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Limits of Oceans and Seas". At that time, Japan had been in control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refore Koreans could not let the people know the true name of the sea. However, even in the olden times, or 2,000 some years ago, people had used the name "East Sea" for their geographical maps.

And you may be thinking, why is it so important for Koreans to be right about this and "rename" the sea back to its original and proper name? See, back when the "East Sea" was renamed the "Sea of Japan", the Korean people were under the control of the Japanese government. They had no rights and were mistreated harshly. And because of this, they find the name "Sea of Japan" offensive and it reminds them of a time when things were rough. To a Korean, the term "East Sea" is not a problem over a name that can be fixed and forgotten, but a problem of recovering Korea's name that had been wrongfully taken by the Japanese government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in 1910-1945. When Japan took over Korea as a colony and enforced laws and ruled there, Koreans were obligated and oftentimes forced into using Japanese words and speaking languages. At this time, Korean place names were changed to Japanese and Korean people's full names were changed to Japanese-style ones through violence and force. So to a Korean, the matter of renaming the

"Sea of Japan" to the "East Sea" is sweeping up the remains of Japanese imperialism and restoring the Korean people's dignity.

And through all the effort, we got a win! On February 4, 2014, the state of Virginia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assed the bill that all textbooks in Virginia education systems had to include the name "East Sea" next to the name "Sea of Japan". And because Virginia, Texas, and five other states had an agreement on sharing textbooks, it is very possible that seven states in the U.S will adopt the name "East Sea" written right next to "Sea of Japan".

Then another success! On August 6, 2019 the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inserted the name "East Sea" into the textbooks for the New York students. In the beginning, there was no specific name that was used for the body of water between these two pieces of land when it was taught in New York schools. Now, both the names "East Sea" and "Sea of Japan" will be used when teaching about the region to help more people understand about the struggle that the Koreans went through and how they succeeded in helping people realize that the "East Sea" is the proper name.

It is even shown in other famous places like National Geographic, worldatlas.com, and many other famous places. This is a huge leap in Korean culture. Speaking out and getting positive responses in return. People listening to the Korean government.

Just like they did, we can help Korea, too. I myself have contributed a little bit by sending an email to VANK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 and telling them that a map had an incorrect error because it didn't have "East Sea" on it, rather "Sea of Japan".

Korea's "East Sea" has been around longer than Japan's "Sea of Japan" and we have evidence that it is not only Japan's sea, but everyone else who is bordering the waters. Even with all of this propaganda from Japan, Korea's "East Sea" is true and correct. We need to speak up to show that we are right and we will prevail.

From "Awareness" to "Acceptance"; Peaceful solution to the discussion of Dokdo and East Sea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8학년 금상 백종우

Nathaniel Branden, a Canadian-American psychotherapist, said, "The first step toward change is awareness. The second step is acceptance." I think this quote can help us find a possible solution for the discussion between South Koreans and Japanese about Dokdo, a small island off the east coast of South Korea. And the renaming of the sea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

The Koreans want to name and call the sea, East Sea, internationally. Another suggestion that the South Koreans proposed was using both names East Sea and Sea of Japan. I looked at two maps, one tangible and one online, and they were both made in Korea. I looked at a globe made in Korea and a map on "Naver.com." When I looked for the sea, they put the name as East Sea. However, when I looked at "Google Maps," it used both names, East Sea and the Sea of Japan. Meanwhile, some maps labeled it as the Sea of Japan, such as this [site \(https://www.nationsonline.org/maps/Political-World-Map-3360.jpg\)](https://www.nationsonline.org/maps/Political-World-Map-3360.jpg).

We should have a more neutral name for the sea. Honestly, the East Sea is from the point of view of Koreans, and the Sea of Japan is favoring the Japanese. At this rate, Korea and Japan are not going to be able to pick a neutral name because both sides are pushing for their name. The naming issue over the 'East Sea' re-

minds me of younger kids with firm opinions not willing to give up an inch in the fight.

When I discussed this topic with trusted adults, I asked whether it was such a vital issue since it's not like you own that part of the sea. In the middle of the

conversation, we started talking about power. I realized that the power might be an issue behind the naming of the sea and that might be why South Korea and Japan aren't giving up their arguments.

The quote, "The first step toward change is awareness. The second step is acceptance," again really stuck out to me. It aligned with my idea about the solution to this situation between the people of Korea and Japan. First, we could spread the news and stories about what is happening to create awareness, which is related to the first part of the quote, "The first step toward change is awareness." I attended online presentations about Dokdo and the East Sea over the summer vacation to increase my awareness. During the presentation, the presenter mentioned a possible name for the East Sea/Sea of Japan is the Sea of Peace. Also, he shared the news that 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 came up with using a numerical system instead of names. Before this presentation, I didn't know and didn't do much about the changing name issue

and Dokdo. But after this experience, I became more aware of what was going on.

To spread awareness, we could start clubs in school, create posters, create websites, and talk with experts in that area like historians. Once we show the world what is happening, we provoke the people to decide, which is related to the second part of the quote: "The second step is acceptance." I have to admit that some people will not accept that Dokdo is Korean property even with proof. And some people will not agree to the name change. However, there are going to be people who change their minds after seeing the news and story. And to agree with the name change and that Dokdo is property of Korea.

The effort put into spreading awareness is essential because people can change their perspectives after awareness of certain issues. And people say there are powers in numbers, so if we get more people educated/spread awareness, more people will support us in the name change and the fact that Dokdo is Korean property.

I want to cite one more quote here. Sojourner Truth said that "Truth is powerful, and it prevails." Like the quote, if we spread what we learn and stick to sharing the facts and the truth, we can succeed in renaming the sea to a name we want or a name on which we all agree.

where and what is Dokdo?

Dokdo is an island 211 km away from main island Japan and 216.8 km away from mainland South Korea (aka Republic of Korea, ROK). It is also 87.4 km away from Ulleungdo, another Korean island. It consists of 2 islets: 88,740 square meters and 73,297 square meters in size, named Seodo (West Islet) and Dongdo (East Islet). Approximately 34 residents live in Dokdo as of April 2021. About 500 tourists visit Dokdo daily, as it is a beautiful island that homes about 60 plant species and 160 bird species. It is also a rest point for migratory birds. So why are these tiny islands in the East Sea not more well-known? That is because of the fact that Dokdo has 2 other names, Dokdo, Liancourt Rocks, and Takeshima.



9학년 금상 김예린

독도가 한국 땅으로 아직 인정받지 못했지만, 인정 받아야 하는 이유

- 방금 전에 말했듯이, 일제강점기 이전 독도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새로운 근거들이 점점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독도가 일제강점기 전 한국이 독도를 한번도 차지하지 않았다는 연합국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던 것이다. 따라서 독도는 한국 땅으로 인정 받아야 마땅하다.
- 또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회담에서 미국은 영국과 소련과 같은 다른 나라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을 회담에 초대하지 않은 연구 결과가 드러났다 (John Price, 13-16쪽).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한국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 결론적으로, 한국은 독도에 영유권을 차지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니 하루빨리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되찾아야 한다.

10학년 금상 김준호



clideo.com



HOME RENOVATION
NAMU

나무

-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금메달리스트
- 대통령 훈장 수훈
- 15년 이상의 경력



WHY NAMU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계약 기한 내 완공

SERVICE

- ✓ 하우스 레노베이션
- ✓ 커스텀 캐비닛, 데크
- ✓ 원목 테이블, 가구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무료
견적
상담

④ www.namuma.com
 ① info@namuma.com
 ② 617-775-4771
 ③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⑤ @namu_finewood

INSTAGRAM



THE PRO REALTY GROUP

수잔 부동산

풍부한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
한인 부동산 회사

T.339.224.1512

245 First Street Riverview II 18th floor Cambridge, MA 02142



Susan Ahn

Broker & Principal

susan@prorealty.group

Kakao ID : susan1223



1

탁월한 협상

오랜경험과 전문적인 팀워크로 구성

2

바이어, 셀러

전문적 지식과 정확한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

3

이주자 상담

타주 & 한국 투자 상담

4

전문적인 일처리

30년 경력 부동산전문 변호사 파트너와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겠습니다!